

2일 Market Index	
코스피 2398.94 (-0.55)	코스닥 686.63 (+8.44)
금리 (연이자율) 2.510 (-0.086)	환율 (원/달러) 1467.25 (-5.25)

“지난이행 마음가짐으로
솔선수범
함께 나아가자”
02



m-커버스토리

혼돈·격변의 시기... 조직개편 통해 혁신·효율 집중

새해 금융권 화두

4대 금융지주, 안정적 성장 방침 내부통제 강화로 신뢰 회복 나서
신기술 기업과 경쟁력 강화 모색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불확실성이 커진 을사년(乙巳年) 새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는 경영 키워드로 ‘혁신’과 ‘효율’을 꺼내 들었다. 연말부터 지속된 탄핵정국과 오는 20일부터 시작될 미국 트럼프 정부 2기의 자국 우선주의는 소비·투자 위축과 기업의 수익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무리한 외형 성장보단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에 방점을 두겠다는 포석이다.

4대 금융지주 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어느 때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혼돈과 격변이 예상되는 시기다”라며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효율적으로 자본이 배분되는지 살펴보고, 신기술·혁신 기업과의 공동체 생태계를 조성,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강

조했다. 우선 4대 금융지주 회장은 조직개편을 통해 조직 규모를 축소한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조직운영의 효율을 도모할 수 있도록 데이터테크놀로지(DT)조직과 인공지능(AI)조직을 통합하는 등 본부조직을 축소

했다”며 “해외에서도 국내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글로벌 관리체계를 정비했다”고 했다. 올해 KB국민은행은 31본부, 139부에서 27본부 117부부로 개편했다.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의 주 계열사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금융사고는 총 37건에 달한다. 배임, 횡령, 운용손실 사태 등으로 발생한 금융사고는 거액의 보상금액을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뢰도에도 타격을 줬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닌 돈이 새는 구멍을 막아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지난해 내부통제에 역점을 두고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고객과 사회의 눈높이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올해는 실질적인 내부통제가 구동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평가, 모니터링 전반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4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개소세 1.5%p 한시 인하, 국내여행 경비 지원

기재부 ‘2025 경제정책방향’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대폭 늘리고 외국인 訪韓축제 연중 릴레이 기획

올해 초부터 자동차 구매 시 붙는 개별소비세율이 1.5%포인트(p) 인하된다. 지난 2023년 7월 정상세율인 5.0%로 환원된 지 1년6개월 만의 세율 할인 조치다. 또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한다. 정부·기업 부담 각각 10만 원씩 직원 1인당 20만 원이다. 정부는 외국인의 방한관광 및 소비촉진의 개최를 연중 릴레이 행사로 기획 중이다. 〈관련기사 3면〉 기획재정부는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 소비 촉진·내수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 중 개소세 인하는 상반기 한시적 시행으로, 기존 차량 출고가의 5.0%에서 3.5%로 세율을 낮춘다. 4000만 원 상당의 중형차 구매 시 내야 하는 세금이 총 70만 원 줄어든다. 개소세는 -49만 원, 교육세(개소세의 30%)는 -15만 원, 부가세(차량공급가액+개소세+교육세 합산의 10%)는 -6만 원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근로자대상 휴가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상반기 내 조기사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 원씩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코리아그랜드세일(1월15일~2월28일)을 설 명절과 연계해 방한관광 붐 조성을 추진한다. 방한 항공권의 최대 94% 할인, 면세점 구매 시

최대 30% 추가 환급 등이 마련됐다. 경제정책방향에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방안도 담겼다. 상반기 중 3만 호 규모의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 지난해 발표한 5만 호(서울 서리풀 2만 호 등)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를 내년 5월까지 연장한다.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은 1년간 완화해, 공공택지의 적기 공급을 추진한다. 물가 관리 및 대응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의 신속 집행도 추진된다. 상반기 중 예산의 80%를 집행한다. 또 오렌지와 바나, 파인애플 등 과일류 10종에 대한 추가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즉각체포” vs “탄핵반대” 충돌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즉각체포 촉구 긴급행동의 집회 주최측이 무대 설치 중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과 충돌하고 있다. /뉴스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모든 위대한 시작은
작은 첫걸음에서 출발합니다

2025 시작

2025년을 시작하는 지금,
대한민국이 시로, 더 큰 수출로 도약할 수 있도록
SK가 대한민국의 첫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여객기 사고의 희생자와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최태원 “지난이행 마음가짐으로 솔선수범… 함께 나아가자”

〈SK그룹 회장〉

〈知難而行〉

산업계 신년사

구광모 LG그룹 회장

“기대를 뛰어넘는 가치 드릴 것”

신동빈 롯데 회장

“체질개선 통해 재도약토대 다져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재계가 올해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마주할 것으로 우려하면서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1일 전체 구성원에게 이메일로 보낸 신년사에서 “지금 우리에게서 어려움을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 ‘지난이행’(知難而行)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시도와 혁신은 언제나 어렵다. 저부터 솔선수범하며 용기를 내어 달려 보겠다. 함께 나아가자”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신년사를 전한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우리가 다져온 고객을 향한 마음과 혁신의 기반 위에 LG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세우자”고 제시했다.

구 회장은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전에 없던 가치를 만든 많은 순간들이 쌓여 지금의 LG가 되었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분명하다”며 “도전과 변화의 DNA로 미래 고객에게 꼭 필요하다

고, 기대를 뛰어넘는 가치를 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해 “불확실성 확대, 내수 시장 침체 장기화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룹 핵심사업의 경쟁력을 회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회장은 강도 높은 쇄신을 주문했다. 그는 “체질 개선을 통해 재도약의 토대를 다져야 한다”며 “재무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무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개개인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업무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항들이 없는지 돌아보고 선도적 지위 회복을 위한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도 주문했다.

이날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안전과 기술 우위, 원가 구조 혁신을 통해 글로벌 위기를 돌파할 것을 주문했다. 장 회장은 “지금 우리는 철강을 비롯한 주력 사업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냉정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안으로 “핵심 R&D 영역을 선정해 역량을 결집, 사업별 난제를 극복하고 미래 시장 변화를 주도할 고유의 설루션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끊임 없는 혁신”을 강조했다. 실행과 성과로 그룹의 경쟁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진정한 위기는 외부로부터 오지 않는다. 우리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 외면하면서 침묵하는 태도가 가장 큰 위기의 경고음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시기일수록 성공에 대한

혁신을 갖고 신속한 실행과 끊임 없는 혁신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본업 경쟁력’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2025년은 우리의 본업에 대해 집요하게 고민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고물가와 불경기 등으로 시장 상황이 나쁘다. 이럴 때도 기업은 도전하고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정 회장은 “본업이란 오늘의 신세계그룹을 있게 한 성장 엔진”이라며 “엔진의 핵심 연료는 1등 고객”이라고 강조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고객 중심 혁신’을 강조했다. 현 회장은 “당장 일감을 주는 기업 고객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제품을 이용하는 고객의 요구를 읽고, 선제적으로 대비해야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며 그룹의 주력인 B2B

(기업 간 사업)에 대한 고정관념 탈피에 무게를 실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도 “성장은 실천에서 시작되고 다양한 협력으로 확장되며 서로의 공감으로 완성되듯이, 우리가 서로를 믿고 도우면서 함께 변화의 파고에 맞서 힘차게 나아가자”고 밝혔다.

CJ 손경식 회장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격차 경쟁력을 강조했다. 그는 “그룹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성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은 각 사업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회장은 글로벌 영도 확장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올 한 해 소통으로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신뢰 받는 백년 효성을 만들자고 독려했다. 조 회장은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존과 미래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권오갑 HD현대 회장은 위기가 곧 기회임을 피력했다. 권 회장은 “미국과의 조선분야 협력은 우리에게 찾아온 새로운 기회”라며 “우리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국가대표 K-조선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구남영·신원선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10억 투자하면 10.8명 고용유발 경제회복 위해 건설투자 확대를”

산업연구원, 건설활동 파급효과 분석
제조업 평균 6.5명 보다 1.7배 많아
전산업비 생산유발효과 10% 높아

침체국면에 빠진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 직간접 고용 창출과 연관산업 생산유발 효과가 큰 건설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2일 발표한 ‘건설활동이 제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 활동은 생산액 10억원당 고용유발인원이 10.8명으로 제조업 평균인 6.5명보다 1.7배 많고, 생산유발효과도 2.017(2020년 기준)로 전산업 평균인 1.875보다 10.5% 높았다.

이는 건설산업의 최종수요 증가가 다른 산업의 최종수요 증가보다 전체 산업의 고용과 생산 증가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설산업은 특히 생산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 산업의 생산 증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연관산업 고용을 창출하게 된다. 2020년 산업연관표를 따르면, 건설산업의 총산출액 281조원에 의한 연관산업의 취업유발 인원은 126만 3433명에 달한다. 특히, 제조업 취업유발 인원은 33만 8600명으로 이는 제조업 전체 취업자의 10.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업종별로, 금속제품과 시멘트·콘크리트·점토제품 산업에 각각 8만 1594명, 6만 900명의 취업을 유발했고, 고무·플라스틱제품(3.5만명), 전기기계(3.4만명), 철강(2.4만명), 일반기계(2.3만명), 목재·목제품(1.5만명), 가구 포함 기타제조업(1.4만명) 순이었다.

2020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건설투자의 고용유발효과를 구해보면, 건설투자를 5조원 확대할 경우, 3만 1575명의 건설산업 고용이 창출되고, 연관산업 고용도 2만 2441명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산업 총산출액 281조원에 의한 연관산업 생산유발액은 284조원 수준이다. 특히, 제조업 생산유발액은 157조원으로 제조업 전체 산출액의 8.9%에 달한다.

산업연구원 박훈 연구위원은 “정부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건설투자를 확대할 경우 건설 고용 확대는 물론이고 제조업 등 연관산업 경기 활성화와 고용 확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美증시 관심 상승… ‘트럼프 랠리’ 이어가나

작년 말 기준 美 주식 1120억 弗 보관
2~3분기 조정장… 매수기회 삼아야

지난 한 해는 그 어느 때 보다 미국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뉴욕 증시 ‘3대 지수’인 ▲S&P(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 지수 ▲다우존스 ▲나스닥의 전고점 경신 기록이 쏟아져 나왔고,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지금이라도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금융투자업계는 2025년 을사년에도 투자자들의 ‘미국 투자 랠리’가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 서학개미 쑥 ↑… M7 필두로 달린 뉴욕증시

2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은 1120억 5556만 달러(약 164조 9233억원)로 2023년말 680억 2349만 달러(약 100조 1170억원)보다 440억 3207만 달러(약 64조 8064억원)가량 증가했다.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한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2024년은 월가에 기록적인 한해였다. 미국 증시를 선택한 서학개미들에게 미국 증시는 높은 수익률을 안겨줬다.

한 해 동안 ▲S&P500 지수 23.3% ▲나스닥 지수 28.6% ▲다우 지수 12.9% 상승률을 기록했다. S&P 500 기업 중 493개 기업이 수익 침체에서 벗어나면서 성장세를 나타냈다. 그 결과 S&P500 지수는 57회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한 해에만 77번 사상 최고치를



ChatGPT로 생성한 ‘푸른 뱀의 해를 맞은 뉴욕증시’

같이 치운 1995년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많이 갈아치운 역대 다섯 번째 기록으로 남게 됐다. 다우, 나스닥 지수도 각각 47회, 38회의 전고점 경신의 역사를 썼다.

특히 ‘M7(매그니피센트7)’ 종목의 활약은 돋보였다. 인공지능(AI)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요 빅테크들이 상승 랠리의 선봉에서 뉴욕 증시 오름세를 견인했다. S&P 다우존스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24일까지 M7 기업들은 전체 주가 지수 수익률의 53% 이상을 차지했다.

◆ ‘R의 공포’에서 ‘트럼프 랠리’로, 2025년은

뉴욕증시가 2024년 내내 오르기만 한 건 아니었다. 예상보다 고용시장이 빠르게 식어가는 추세는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8월 시작과 함께 미국 7월 실업률 4.3%라고 발표했다. 실업률이 상승하자 미 경기침체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 중 하나인 ‘삼의 법칙(Sahm’s rule)’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었

다. 이는 3개월 평균 실업률이 최근 12개월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아지면 경기침체가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미국 경기 둔화 우려에 M7 위주로 큰 하락 폭이 나타났고 이는 신중국 증시에도 큰 타격을 주며 ‘검은 월요일(8월 5일)’로 이어졌다. 하지만 경기침체의 공포를 이겨내고 11월 대선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서 ‘트럼프 랠리’로 추진력을 얻기 시작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식에서 최소 25개의 행정 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투자자들은 이와 관련한 주가 변동을 주목하고 있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는 내년에도 미국 주식이 탄탄한 이익 성장을 기반으로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강세장이 3년 차로 접어들며 지난 2년에 비해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내년 2~3분기에는 조정장이 올 수 있지만 이를 매수 기회로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메트로경제신문 임직원 일동은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
의 명복을 빕니다.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달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5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 참석해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관광·건설 등 내수진작 초점... 핵심광물 공급망 전방위 지원

소비 활성화 통해 성장 촉진 건설업체 택지공급 규제 완화 일각선 건전재정 상충 우려도

기획재정부가 2일 내놓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내수 진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차량 출고가에 매기는 개별소비세를 내려 가구의 적극적인 자동차 구매를 꾀한다. 특히, 상반기에 6개월 한시적 조처라는 단서는 잠재 구매자의 마음을 조금더 자극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민간소비는 내수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성장률과 관련해, 계엄 사태 이후 더 급해진 정부입장에서 나름의 직효를 낸다고도 볼 수 있다. 더구나 1년6개월 만에 시행되는 개세 인하다. 많은 이가 신차 구입 시기를 미루고 이 시점만을 기다렸을 지 모른다. 4000만 원대 차량을 70만 원쯤 싸게 살 수 있다니 고려해 볼 직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여행비 지원에 공공택지 전매안화 등 내수부양 '올인'

정부가 근로자 여행비까지 일부 내준다고 했다. 근로자 1인이 20만 원을 적립할 시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고 소속 기업도 10만 원을 대주는 국내 지방여행 촉진책이다. 올해 예산이 어떨지 모르지만 국민과 지역상인 입장에서 가격 제한

정부 2025년 정책방향	
목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대응, 경제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보강 강화, 민생지원 소비·건설 등 활력 제고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 취약부분 맞춤형 지원 	대외신인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외환시장 안정적 관리 자본시장 선진화 외국인 투자 촉진 잠재리스크 관리
산업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력산업 혁신 유망 신산업 등 경쟁력 제고 핵심인프라 확충 투자환경 개선, 중소기업 활성화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 대외경제전략 추진 전략적 수출 지원 공급망 안정

자료: 정부 / 뉴시스 그래픽

임에 분명하다. 이는 추가경정예산편성이 꼭 요구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정부는 내수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건설 부문 살리기에 나섰다. 시공을 원하는 업체를 위해 택지 공급과 관련한 규제를 푼다. 공공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을 완화해 택지 확보가 수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관건은 코로나19를 거치며 오를 대로 오른 건축 자재비다. 설상가상으로 미달러화 대비 원화 가격의 추락은 큰 약재다. 건설 부문에 약이 돼 온 금리 인하 등이 향후 호재일지 아닐지 따져볼 문제다.

이같이 소비회복의 지연과 건설경기 부진은 지난해 이후 경제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로 돼 왔다. 특히 건축은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 탓에 주거용 건물 중심으로 불황 지속이 예측된다. 반면 토

목의 경우, 수도권 GTX·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사업 공사 실적이 반영되면서 감소 폭이 일부 완화될 것이라 전문가들 예상이다.

◆ '불투명한 명제' 내수회복

전문가들은 올해 탄핵정국과 미 신정부 출범 등 내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고환율이 지속되거나 소비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물가상승률 둔화 흐름이 깨질 수 있고 우려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뉴시스에 "물가는 1%대로 올해보다는 좀더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변수는 환율 문제"라며 "환율이 높아진 상태가 오래가면 생산원가가, 유가가 오르면 정부가 전망하는 1%대가 깨질 수 있

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건설 경기는 부동산도 안 좋기 때문에 어렵게 본다고 했다. 또 "수출은 트럼프 행정부가 1월20일 출범하면 다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통상정책을) 더 강도 높게 할지의 여부인데, 그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결국 국내 생산·설비투자는 이뤄지지 않고 해외로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국내 경기문제는 여전히 어렵게 된다"라고 했다.

또 다른 교수는 "탄핵 정국에 소비 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돼, 사이클(경기순환)의 바닥이 빨리 드러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수 진작을 위한 실효적 방안은 사실상 한계에 온 것 같다. 약간의 재정 확대와 세제만으론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는 올해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국내 생산지원 확대를 위해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민관의 핵심광물 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

우선 경제안보품목이나 서비스 관련 국내 공장을 신설 혹은 증설할 경우, 외국인투자자와 지방투자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외투 현금 지원 우대 대상에 경제안보품목·서비스를 추가하고 지원비율을 최대 10% 포인트까지 가산한다.

경제안보품목·서비스 투자에 대한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비율 역시 소부장 특화단지 입주기업 수준인 2% 포인트(p)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아울러, 핵심광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자금 패키지를 지원한다.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를 통해 사업발굴 등 정보제공·컨설팅 및 대출·투자·보증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급망 기금 500억원을 활용해 민관 공동투자를 추진하고 연도별 수요에 따라 장기투자도 추진한다.

기재부가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은 암울하다. 지난해 예측치(2.1%)보다 둔화한 1.8% 수준으로 2025 성장률을 제시했다. 이는 한국은행 1.9%, 한국개발연구원(KDI) 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 보다도 낮다.

민간소비 및 건설 지원에 따른 세수 결손이 또다시 현실화할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 올해 대선이 치러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시 재원 마련 및 쓸 곳에 대한 근거·명시가 불분명하면 향후 세부족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올해 내수진작 정책과 건전재정 확보가 양립할 수 있을지 이목을 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유망 中企 100곳 선발... 정책자금 지원 등 중견기업 육성

벤처·스타트업에 2.5조 정책금융 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규모 발행

정부가 중소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확장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유망 중소기업 100곳을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벤처·스타트업을 위해 2조 5000억원의 정책금융도 마련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어치 발행한다.

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다음 달 유망 중소기업 100곳을 선발해 오픈바우처, 정책자금, 제조시설 스마트화 등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도 만든다. '기업승계법' 제정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법무부가 협업체 국가 연구개발(R&D) 기술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사업

소상공인 매출기반 확대	
소득공제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카드 금액 2025년 소득공제율 2배 이상 15%→30% *매출액 기준 1억400만원 이하
온누리상품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 기간(1월10일~2월10일) 디지털 할인율 10%→15% 상향 온라인 전통시장관 이용시 5% 할인쿠폰 지급 디지털 결제액 15% 상품권으로 환급 *인당 최대 2만원 온누리상품권 13만원 상당 물품 구매시 4만원(30%) 할인 혜택 (구매 할인 2만원+환급 2만원)
	· 사용자 확대 골목형 상점이 추가 지정 및 밀집조건 완화

자료: 정부 / 뉴시스 그래픽

화 전문회사 활성화 및 인센티브 강화를 추진한다.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 모빌리티 등 초격차 10대 분야의 스타트업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원천기술 사업화, 스케일업, 글로벌 제약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등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지역 현장의 정책 수요에 부합하도록

중앙-지자체가 예산을 공동 매칭·기획하는 지역 특화형 스마트공장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지방의 제조혁신에 힘을 실는다.

벤처 투자를 확대해 벤처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 벤처·스타트업에 올해 2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중점적으로 투입하면서다.

모태펀드 출자사업은 1분기 내 공고해 상반기 조기출자에 나선다.

올해 온누리상품권을 5조5000억원 발행하고, 할인율과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다. 할인율은 1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설 성수기 한시적으로 카드형과 모바일 구매시 10%에서 15%로 상향 적용한다.

같은 기간 디지털 결제액의 15%를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이벤트도 신설한다.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내 환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인 '온라인 전통시장관' 이용 시 상품가격의 5%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확대된다. 정부는 골목형상점가를 90개 추가지정하고, 골목형 상점이 밀집조건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이 사용처가 제한적이라서 불편함이 있었는데 표준조례안을 배포해서 골목형 상점이 밀집 조건을 2000㎡당 30개에서 15개로, 특히 인구감소 지역은 10개까지 완화해서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이날 정부가 내놓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은 정부가 중점을 잡고 경제 심리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며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지난해 2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정책과제들이 빠르게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계는 ▲소상공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배 인상 ▲백년가계 가업 상속공제 대상 포함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투자 임시대차제액공제 및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2025년 한시 적용)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한도 2배 상향 등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 법 통과가 필수"라면서 "여야가 조속히 협치해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

‘빈삼각을 두지 말라’... 신뢰·협력으로 미래 금융 준비

은행, 위기를 기회로

바둑 격언 중 ‘빈삼각을 두지 말라’는 말이 있다. 급소를 당하기 전에 미리 자신의 삼각 모양을 잘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또 빈삼각을 만들지 말아야 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 아이러니 하기도 자신의 모양을 지키기 위해선 상대방의 돌에 기대야 한다. 위기의 상황이지만 나아가기 위해선 본인의 모양을 지키기 위해 협업해야 한다는 뜻이다.

2일 4대 금융지주는 금융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요소인 ‘고객의 신뢰’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고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시기, 금융의 본질적인 요소마저 잃는다면 금융의 존재 이유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객 신뢰 회복, 내부통제 혁신 핵심 플랫폼 금융 도입, 고객 접근성 향상 임베디드 금융으로 ‘생태계’ 확대

◆ 고객신뢰 회복... 내부통제 강화

4대 금융지주는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무구조도를 마련,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업무범위를 정한 뒤,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기준의 작동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제도다. 금융권 횡령이나 미공개 정보활용, 불완전 판매, 불법계좌 등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업무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효성 있게 책무구조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했다.

KB금융은 준법감시인 아래 소비자보호분부를 회장 직속의 C레벨급 소비자보호 담당으로 확대 재편했다. KB금융 준법감시인은 상시감시, 책무관리 전담조직을 별도로 설치해 금융사고 예방과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더 강화한다.

신한금융도 준법감시인이 소비자보호분장을 겸임하던 것을 해제하고, 준법감시파트를 신설해 소비자보호분에서 분리했다. 준법감시 파트는 회장 직속으로 편제되며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만을, 소비자보호분장은 소비자보호 업무만을 수행한다.

우리금융은 감사위원회 아래에 있는 윤리경영실을 오는 3월 주주총회를 거



쳐 만들어지는 윤리·내부통제위원회 산하로 옮긴다. 윤리경영실은 그룹사 임원 감찰, 윤리 정책 수립·전파, 내부자 신고 제도 정책 수립 등을 총괄한다.

앞서 우리금융은 윤리경영실장으로 검찰 출신인 외부 법률 전문가 이동수 변호사를 영입했다. 경영진의 일탈 행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내부통제 체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여러 제도와 시스템을 실효성있게 개선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뼈아픈 사고로 고객에 심려를 끼쳤다”며 “우리금융을 더 단단한 신뢰의 기반위에 바로세우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만큼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근원적으로 혁신하고, 윤리적 기업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빅테크·핀테크 기업과 협업

대외적으로 오는 20일 트럼프 정부 2기가 출범하는 등 불확실성이 고조된 만큼 빅테크·플랫폼 기업 등 신기술·혁신 기업과 협업해 금융 경쟁력을 강화한다.

우선 임베디드 금융을 강화할 전망이다. 임베디드 금융(Embedded Finance)은 직역하면 내장된 금융으로, 비금

융 회사가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을 중개하거나 재판매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플랫폼에 금융기능을 내장하는 것을 말한다. 커머스 앱에서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하거나, 은행 대출 상품을 연결해주는 형태다.

앞서 KB금융의 계열사인 국민은행은 삼성금융네트워크의 통합앱인 모니모와 제휴했다. 삼성금융네트워크는 삼성그룹의 금융 자회사인 삼성생명, 삼성카드, 삼성화재, 삼성증권의 통합브랜드다. 이들의 경우 은행이 없어 금융활동의 기본이 되는 입출금 통장이 없는 만큼 국민은행과 제휴해 앱 내에서 계좌개설, 조회, 이체 등 बैं킹서비스를 구현했다.

제4인터넷은행과 손잡고 금융생태계 형성에도 기여한다.

앞서 우리금융의 계열사인 우리은행은 지난해 제 4인터넷은행에 도전장을 내민 KCD컨소시엄에 투자의향서를 전달했다.

◆ 초고령화 사회대비

미래 먹거리를 위한 상품도 출시한다. 올해부터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만큼 시니어층을 위한 전문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금융은 앞서 시니어 특화브랜드 ‘하나 더 넥스트’를 출범하고 시니어 세대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화서비스를 마련했다.

하나은행·하나증권·하나생명보험 등 그룹내 관계사간 협업을 바탕으로 은퇴설계, 상속·증여, 건강관리 등 금융과 비금융 분야 전반을 관리한다.

고령화 대비, 은퇴·상속 등 솔루션 시니어 전문상담사 투자상품 설계 빅테크와 디지털 금융 서비스 확대

투자상품 및 은퇴특화 포트폴리오 설계에 대한 연수를 수료한 시니어 전문 상담인력들이 배치돼 ▲은퇴 필요자금 분석 및 미래자산 포트폴리오 설계 ▲유연대용신탁을 활용한 스마트한 자산 이전 준비 ▲건강관리 및 비금융 시니어 특화콘텐츠 등의 노후 준비 솔루션을 제공한다.

신한금융의 신한은행은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세대를 대상으로 은행업무를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시니어 특화점포를 마련했다.

일반 영업점과 달리 번호표 글씨는 크고, 대기번호 안내 소리도 크다. ATM기 또한 글씨 크기를 키우고 돈 찾기(출금), 돈 넣기(입금) 등 쉬운 용어로 메뉴를 구성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내수 부진 및 수출 둔화,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도전적인 경영환경이 예상된다”며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산업생태계의 변화에 맞춰 과제를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의 시니어 특화점포인 신림동 지점

/신한은행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플랫폼 기업과 상생 생태계 조성”

» 1면 ‘새해 금융권 화두’서 계속

내실있는 혁신서비스 기업과 협력

오는 3월 연임이 유력한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복잡한 전략이나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요소에 충실해야 한다”며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엄격한 내부통제, 효율적인 비용 집행으로 내실을 다지겠다”고 했다.

우리금융은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조직 전반을 추스를 방침이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근원적으로 혁신하고 이행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모든 영업과 업무과정에서 내부통제가 효율적으로 녹아 들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금융지주는 신기술,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와 제휴를 통해 경쟁력을 강

화를 모색한다. 무리한 사업 확대보다 내실있는 혁신서비스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 성장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리딩금융’을 이끄는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은 더 이상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라며 “임베디드 금융(비금융 플랫폼에 내장된 핀테크 서비스)을 통해 우리의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휴사로부터 새로운 고객

을 확보하는 공동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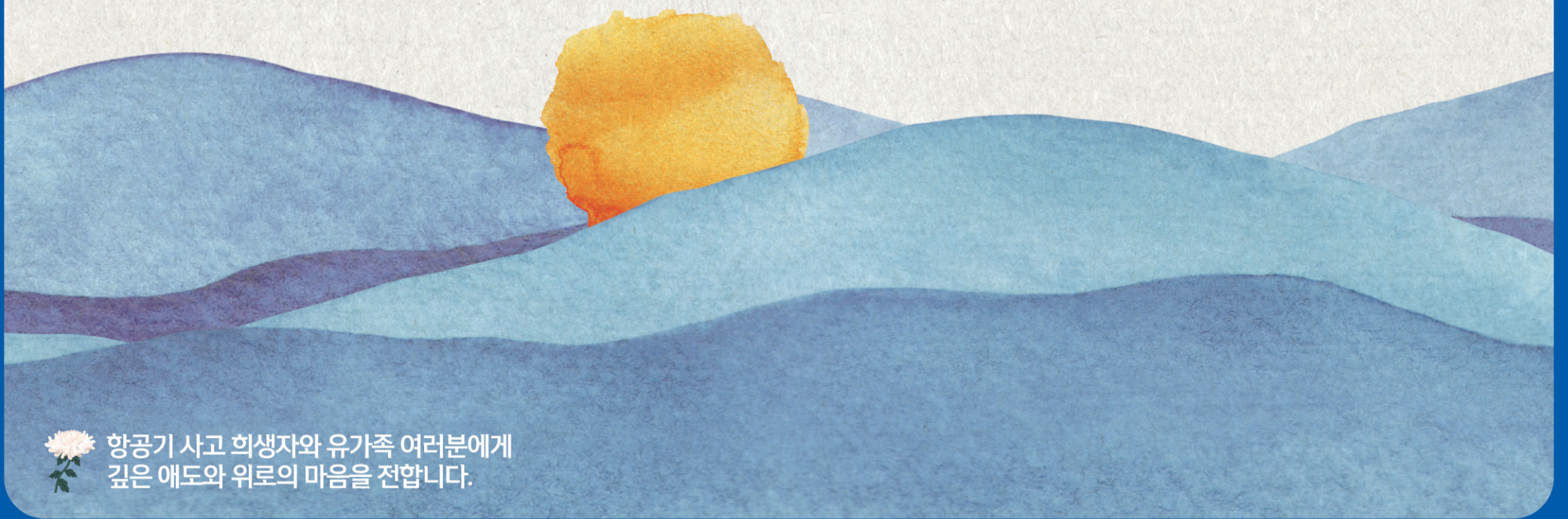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자생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수·합병(M&A)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직에 심각한 부담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기술 및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와 제휴를 지속하고, 파트너십과 거래 확보를 통해 본업과도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유리 기자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소중한 일상을 이어가는
대한민국 모두의
발걸음을 응원하며
**2025년에도
마음을 다해
동행하겠습니다**



항공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신한금융그룹

민생경제 위기... '반도체특별법·전력망법' 등 與野 합의 절실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여야 이견 차로 상임위 계류 중

與 “이달 국회서 일괄처리 제안” 野 “與, 계속해서 법안 논의 회피 시 패스트트랙 지정 등 대책 강구”

연말에 대한민국을 강타한 일련의 정국 혼란 사태로 국회의 민생·경제 입법까지 모두 정지된 가운데, 반도체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는 법안의 연초 여야 합의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경영 선포,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처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등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민생·경제를 이끌고 뒷받침해야 할 정치가 경제를 집어삼켰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다행인 점은 2024년 말 여야 대표가 만나 국정 안정을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하면서 민생·경제 합의 처리 가능성도 높아졌다.

특히 반도체특별법의 1월 임시국회 합의 처리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글로벌 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과 기술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여야를 초월해 발의되



권영세(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는 등 경제계의 숙원 법안이다. 여당은반도체 산업에 세액공제를 넘어 '직접 보조금'을 주는 조항을, 야당은 대규모 정책 금융 지원 방안을 담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여당안에 담긴 '고소득 연구개발(R&D) 직군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 조항을 야당이 문제 삼으면서 산자위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력망법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급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력망법은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해 전력망 설치 과정의 갈등과 분쟁을 중재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전력망법도 22대 국회 출범부터 여야 산자위 소속 의원들이 앞다퉀 발의했으나, 상임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외에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 시설 건설과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고준위 방폐장법'과 정부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해상풍력특별법',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제재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등이 여야의 합의를 이뤘거나 이견차가 있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상황에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 해상풍력법 등 국가미래먹거리 사업법을 이번 1월 국회에서 일괄처리하자는 제안을 드린다"며 "해의 경쟁 기업들은 필요하면 심야에도 연구에 몰두하는데, 우리는 경직적인 주52시간제 때문에 무조건 연구소 불을 꺼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면 반도체 1위 신화는 계속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5년 을사년은 정치가 국가 경제를 든든히 지원하는 한 해가 돼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민생국회라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의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까지 태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지

난해 12월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지원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등은 산자위 내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소극적인 태도로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며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입법 논의를 회피한다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포함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12월31일 국회의장이 주재한 양당 당 대표 회동에서 국정 협의체 구성을 합의했다"며 "신속한 실무 협의를 거쳐서 외교 안보의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조속히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논란

우원식, 이르면 금주 권한쟁의 심판 청구

(국회의장)

崔 취사선택으로 국회 권한 침해 입장 현재, 권한쟁의 심판 빠른 검토 전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하면서, 8명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현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들을 선별적으로 임명한 점은 논란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르면 이번주 중 현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를 먼저 해야 한다고 임명을 보류했다.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또 다른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들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요식행위의 의미를 갖는다는 해석이 많다. 그렇기에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원식 의장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취사선택했으니, 국회의 권



정계선(왼쪽),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한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것이 권한인데, 이미 선출된 후보자를 최 권한대행이 임의로 걸러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 의장이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두고 현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을 정하면서, 이에 대한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현재가 시비를 가리는 절차다. 만약 우 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여야 합의보다 빨리 현재 9명 체제가 완성될 수 있다.

특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권한대행을 계속 바꿔도 헌법재판관 임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다른 경로



로 9인 체제 완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판단해서다.

정치권은 현재가 우 의장의 권한쟁의심판을 빠르게 검토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국회의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주체가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기 때문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입법권의 수장으로서 내는 쟁의 심판이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으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직접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가 위헌적인 상황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임시 지위를 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법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 바 있다. /서예진 기자 syj@

與, 제주항공 참사 성금 모금·특별법 제정

"유가족 음해·비방 가짜뉴스 퍼져 관계 당국 신속 수사·처벌 촉구"

국민의힘이 2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성금 모금·특별법 제정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내놓으며 수습에 나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 회의에서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다. 우리 국민의힘이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서 당 차원에서 성금 모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구성원 모두가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힘이 되어 드리겠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추모해 주시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취임 첫 행보로 무안국제공항으로 내려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원책을 논의했던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도 무안국제공항으로 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어제 새해 첫날을 맞아, 무안으로 가서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만나고 왔다. 우리당 의원님들께서도 국가 애도 기간 동안, 무안으로 방문하여 유가족을 위로할 계획"이라며 "국정이 몹시 혼란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국가적 참사 앞에서 정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유가족 위로와 지원은 물론,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생활·의료·심리상담 치료 지원, 근로자 치유 휴직을 포함한 유가족 지원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며 "정부와 협력해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과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여객기 참사에 대한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퍼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1일) 직접 유가족을 만나보니, 유가족을 음해, 비방하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고 한다"면서 "가족을 잃은 슬픔에 또다시 대못을 박는 범죄행위다. 관계 당국의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무안국제공항에 머무르며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의 179명 전원의 신원이 확인되었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아직 그 대다수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는 못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유족들의 요청을 신속하고 빠짐없이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참사의 원인 규명도 서둘러야 하겠다. 하지만, 선부른 추측과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가적 재난 해결과 국민적 아픔을 치유하는 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하나금융그룹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이들의 웃음과 희망을 지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심은

하나금융그룹이 6년간 쉬 없이
달려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0개의 어린이집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소외 없는 틈새 돌봄으로
보육 사각지대를 채우는 데 집중하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행복한 세상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꿈을 담은 100호 어린이집의 완공으로
7,519명 어린이 돌봄 가능

누구 하나 소외 없이, 평등한 보육을 약속하는 어린이집
장애아 대상 18개소 / 농어촌 지역 30개소 건립

100호 어린이집으로 이루는 상생
1,510명 일자리 창출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한도 상향, 하반기 부분 인출도 허용

소득 낮은 청년 정책금융 혜택 ↑
주택드림대출, 최저 2.2%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자금 대출 지원
주택드림청약, 연말 신규가입 중단

정부가 새해를 맞아 청년정책금융상품의 혜택을 강화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 기여금 한도를 상향해 소득이 낮은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하반기부터는 부분 인출도 허용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은 가입자 전용 대출 상품을 출시해 청년의 주택 마련을 지원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새해를 맞아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정책금융상품의 혜택을 강화한다. 혜택이 강화되는 주요 상품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년도약계좌', 국토교통부의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 동안 월 70만원을 입금하면 정부 기여금을 포함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금리가 은행권 적금 상품보다 높지만, 5년에 달하는 가입 기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새해 혜택이 늘어난 청년정책금융상품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청년도약계좌 홍보물이 붙어 있다.

/뉴스1

가입기간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해 청년도약계좌의 중도 해지 시에도 은행 적금 수준의 금리를 보전해주도록 하고, 해지 요건 발생 시에도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는 소득 구간별로 책정됐던 월 납입액에 따른 매칭 지원금 한도를 상향해 소득이 적은 청년도 더 많은 금액을 내면 이전보다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단, 최대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가입자(연 소득 4800만~6000만원)는 제외된다.

앞서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구간별로

월 최대 40만~70만원의 납입액에만 정부 기여금을 지급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매칭률(연 소득 2400만원 이하 기준 6%)을 적용했지만, 기여금 한도를 넘긴 금액에는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소득 구간별 기여금 한도를 넘긴 금액에도 3%의 정부 기여금이 지급된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 월 70만원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고 있다면, 정부 기여금이 월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약 37.5% 늘어난다. 소득 구간별로 기대되는 기여금 증액 규모는 약 13.7~37.5% 수준이다.

또한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를 2년 이상 유지한 가입자에 한해 납입액의 40%까지 부분 인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만기 시 기대 가능한 금액(정부 기여금)이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해 일반적금융상품 기준으로 기존 연 최대 8.87%의 수익효과에서 향후 연 최대 9.54%의 수익효과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청년주택드림청약'도 올해부터 연계 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은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연 4.5%의 금리를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일시납 한도 및 월 납입 인정액이 일반 청약 통장보다 높고, 금리도 은행권 적금에 필적한다.

올해부터 운영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주택드림청약 가입을 1년 이상 유지한 청년이 청약에 당첨될 경우 최저 연 2.2%의 낮은 금리에 분양가의 80%까지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전용 대출 상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드림대출 이용 시 대출액 3억원을 기준으로 기대 가능한 이자 비용 절감액은 연 800만원에 달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이 올해 말 신규 가입을 중단하는 만큼, 청약 통장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일반 청약 통장을 보유한 19~34세 청년은 주택드림청약 전환 및 신규 개설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신혼부부 중복청약을 허용하는 등 청년 혜택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청년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정책에 대한 청년층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고객·사회에 신뢰 파는 은행돼야” “변화는 미래 위한 생존 비용... 새 전략 고민해야”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취임 직후 여의도 영업부 방문
고객과 만나 감사의 인사 전해

이환주 KB국민은행 신임 행장이 “단순히 ‘금융상품을 파는 은행’을 넘어 고객과 사회에 ‘신뢰를 파는 은행’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행장은 2일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취임식을 갖고 “우리가 고객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전함으로써 고객이 중요한 선택을 하는 때 순간마다 가장 먼저 KB국민은행을 찾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행장은 은행장으로 내정된 첫 출근길에 ‘신뢰’라는 말을 다섯 번이나 강조한 바 있다.

이 행장은 “시선을 밖으로 돌려 ‘새로 고침’의 방식으로 오늘의 KB국민은행을 직시하고 혁신해야 한다”며 “리테일과 기업금융, 자산관리(WM), 기업·투자은행(CIB), 자본시장, 디지털 등 각 비즈니스가 지향하는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본질적인 측면에서 통찰하며 재정의하고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고객의 눈높이에서 페인 포인트(Pain Point)를 끊임없이 찾고 진단·지정하고 과감한 새로 고침의 방식을 통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절박한 혁신 과정을 반복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B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위해선 목적에 집중하고, 최적화된 수단을 찾아 실행하는 능력이 핵심이라고 봤다.

이 행장은 “지금처럼 대부분의 경쟁자들과 전략 방향이 대동소이한 상황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서는 작은 차이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들게 되고, 작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실행력이 경쟁에서의 승부를 가르게 된다”며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는 소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을 경계하면서 숲 전체를 바라보고 나무 하나하나의 디테일도 놓치지 않는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임직원 모두가 ‘휘슬 블로어(Whistle Blower)’라는 마음가짐으로 언제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자율과 규율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편향과 쏠림을 지양하며 균형된 사고를 실천하는 KB국민은행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 행장은 취임식 직후 첫 행보로 여의도영업부를 방문해 고객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KB국민은행과 30년 이상 거래한 고객을 접견하고 감사의 인사와 새해 인사를 전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0@

박창훈 신한카드 신임 대표이사
“지속가능 수익성 창출이 본질
양적 혁신 없이 질적혁명 없어”

박창훈 신한카드 신임 대표이사(사진)는 취임사를 통해 변화와 혁신을 예고했다. 박창훈 대표는 조직의 성장을 위해 도전과 임직원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박창훈 신한카드 사장은 2일 취임사에서 “경쟁의 흐름에 제대로 올라타고 있는지 자문한다”며 “‘변화’와 ‘혁신’이란 2가지 핵심 키워드를 말하고 싶다”고 했다.

변화 영역에서는 그동안의 성공 공식을 버릴 것을 강조했다.



우리가 처한 냉정한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변화는 향후를 위한 생존 비용이다”라며 “우리에게 맞는 새로운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시장 지위의 확대에 따른 지속 가능한 수익성 창출이 본질적 지향점이다”라고 말했다.

박 사장은 혁신을 위해 질과 양 모두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적 혁신이 없는 회사가 질적

혁명을 이룬 사례는 세계 기업 그 어디에도 없다”라며 “비용을 줄이면서도 시장지위를 높이고, 리스크를 낮추면서도 수익자산은 확대하는 것은 보통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주요 조건이 상충하는 난제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사장은 임직원의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시장을 흔들 무언가를 만들어 내야 한다면, 많은 시도를 해 보는 것이 유일한 열쇠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스스로 해낸다면 성장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지만, 실패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고객가치 중심 비즈니스 혁신 통해 돌파구 찾아야”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올해 성장·수익·건전성 약화 우려”

신창재 교보생명대표이사겸이사회 의장(사진)은 “시장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고객 가치 중심의 비즈니스 혁신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신창재 의장은 ‘2025 사업연도 출발 조회사’에서 “올해 보험산업은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이 악화되는 3중고를 겪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신 의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 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



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생산가능인구 감소, 경제성장률 둔화, 내수진작을 위한 금리인하 조치 등으로 인해 올해는 보험 신계약 매출과 자산운용 이익이 감소돼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려운 경영환경을 돌파할 출구를 찾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혁신을 통해 생명보험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우선 가족보장·건강보장 중심

으로 고객에게 균형 잡힌 보장을 제공하면서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 니즈 기반의 마케팅을 강화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상품·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퀄리티(Quality) 기반의 금융소비자보호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보험비즈니스 전(全) 단계에서 소비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회사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해 더욱 신뢰받는 회사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형 기자 gh471@

올사년 업황 전망

美-中 무역전쟁 2라운드 'K-태양광' 반사이익 기대

한화큐셀 등 현지 생산체계 구축
트럼프2기 에너지 정책 변화 관전

미국 태양광 모듈 수입량이 동남아 우회 중국산 모듈에 대한 면세 조치가 종료되면서 2025년 내내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셀 수입량은 증가하고 있어 미국에서 태양광 밸류체인 구축을 추진하는 국내 업체들에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태양광 모듈 수입량은 지난 2024년 5월 5.88GW(기가와트)를 고점으로 같은해 6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지난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우회 중국산 패널에 대한 면세 조치가 종료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미국의 셀 수입량은 지난 2024년 4월 0.71GW를 저점으로 같은해 10월 1.41GW로 약 100% 상승했다. 10월 누적 미국 셀 수입량은 10.86GW로 전년 대비 28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시행한 셰이프가드 조치에 따른 관세 할당 제도가 지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태양광 모듈 대비 셀 생산능력은 중장기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는 미국 태양광 모듈 생산 능력이 약 40GW에 달하지만, 셀 생산능력은 10GW 미만으로 추정했다. 결국 미국은 모듈을 생산하기 위해 셀 수입량에 의존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에 미국에서 태양광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 현지 생산 체계를 구축한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이 이익을 볼 수 있



미국 조지아주 한화큐셀 카터빌 공장 전경. /한화큐셀

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큐셀은 미국에 3조원 이상을 투자해 '솔라 허브'를 구축 중이다. 이 회사는 솔라 허브에서 잉곳·웨이퍼·셀·모듈로 이어지는 태양광 핵심 밸류체인을 모두 갖춘다는 계획이다.

OCI홀딩스도 미국내 태양광 밸류체인 확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실적 성장을 목표로 한다. OCI홀딩스는 미국 현지 합작사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OCIM으로부터 텍사스의 MSEE, OCI에너지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 체계를 구축하는 등 비중국 태양광 밸류체인 확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에너지 정책 변화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일부 화석 연료로 회귀할 수 있을지, 대중 봉쇄 기조는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견제가 심화될수록 국내 태양광업체들에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철강업계, 수요 둔화 '적신호' 생산량 조절 등 몸집 줄이기

건설업 등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
업계, 리스크 최소화 방안 모색

철강업계 누적 조강생산량이 수요 위축으로 인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업 경기침체와 전반적인 수요 둔화의 여파로 철강사들이 생산량 조절에 나선 것이다.

철강업계는 2025년에도 업황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원가 절감, 생산량 조절을 통한 수익성 방어에 주력할 방침이다.

2일 전세계철강협회(WSA)에 따르면 지난 11월 전세계 조강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0.8% 증가한 1억5000만톤을 기록했다. 그러나 전월대비로는 3.5% 감소함과 동시에 11월 누적으로도 전년동기대비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대 생산국인 중국은 11월 생산량이 전년동기대비 2.5% 증가한 7840만톤을 기록했는데, 이는 10월의 8190만톤보다 낮은 수준이다. 11월 누적으로도 전년동기대비 2.7% 감소한 9억3000만톤으로 집계됐다.

전세계 조강 생산의 3~6위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 미국, 러시아와 한국의 생산 또한 지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미국, 러시아, 한국의 지난 11월 생산량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1%, 2.8%, 9.2%, 3.6% 낮아졌다.

철강사들의 생산 감소세는 동절기 비수기로 인한 수요 둔화 영향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수요 부진이나 강제 재고가 쌓이는 등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량 조절에 나섰으며, 이를 위해 공장 가동 시간을 줄이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2025년에도 '몸집 줄이기'를 통해 불황을 극복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올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경

해 전망이 여전히 어두운 상황에서,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포스코는 지난 11월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 가동을 45년 9개월 만에 중단했다. 같은 해 7월 포항 제1제강공장에 이어 두 번째 가동 중단 사례다. 글로벌 철강공급 과잉현상, 해외 저가 철강재의 공세, 설비 노후화 등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폐쇄를 결정했다.

현대제철도 제강·압연 공정을 진행하는 포항 2공장 축소 운영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 2공장 제강과 압연 공정 모두 기존 4조 2교대 체제에서 2조 2교대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같은 결정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저조한 가동률이 원인으로 꼽힌다. 현대제철 포항 공장은 본사 인천공장에 이은 국내 주요 봉형강 생산거점 중 하나로 대부분 H형강을 생산한다.

실상가상으로 환율 급등까지 겹쳐 달걀지대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국내 철강사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대부분을 호주 및 브라질 등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결제 대금이 달러로 계산돼 환율이 오르면 지불 금액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덩치 키우고 상품성 높이고... '뉴 X3' 쾌속질주 한화그룹, '한화인더-한화비전' 통합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 적용
T맵 기반 내비게이션 등 국내 최적화

BMW가 7년 만에 완전변경 모델로 국내 출시한 중형 스포츠 액티비티 비히클(SAV) '뉴 X3'가 스포티하고 다재다능한 매력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4세대 BMW 뉴 X3는 이전 세대 대비 커진 차체, 고급스러우면서도 강렬한 내외관 디자인을 선보이며 BMW 최신 운영 체제인 'BMW 오퍼레이팅 시스템 9'를 적용해 보다 진보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한다. 더불어 모든 모델에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이 기본 사양으로 적용돼 더욱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자랑한다.

BMW 뉴 X3는 내외관에 현대적인 디자인 언어를 적용해 BMW X 모델다운 스포티함에 고급스러움을 더한 디자인을 완성했다.

우선 외관은 날렵한 디자인의 헤드라이트와 BMW 아이코닉 글로우가 조



BMW 코리아 4세대 뉴 X3 주행모습.

화를 이루어 한층 강렬해진 존재감을 드러낸다. 차체는 이전 세대에 비해 길이와 폭이 늘어나고 높이는 낮아져 한층 역동적인 비율을 자랑한다.

실내 공간은 BMW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새로운 디자인의 BMW 엠비언트 라이트, 일루미네이티드 에어벤트 등을 적용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부여하고 앞좌석 스포츠 시트, D컷 스티어링 휠 등으로 스포티한 감각을 강조한다. 또 BMW 뉴 X3는 이전 세대 대비 20L 늘어난 570L로 넉넉한 공간과 함께 다재다능한 활용성도 갖췄다.

BMW 뉴 X3는 최신 운영체제 및 첨단 전자 보조 시스템 등을 기본으로 탑재해 우수한 편의성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기대감을 얻고 있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것은 TMAP 기반의 한국형 BMW 내비게이션이다.

또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을 기본 적용해 연료 효율성을 높였다. BMW 뉴 X3는 모든 모델에 BMW xDrive(드라이브) 지능형 사륜구동 시스템과 함께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이 기본 사양으로 적용돼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자랑한다.

/양성운 기자 ysw@

사명 한화비전... 경영 효율성 강화

한화그룹의 제조장비 솔루션 업체인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한화인더)가 지난 1일자로 자회사 한화비전을 흡수 합병하고 통합된 법인 이름을 '한화비전'으로 변경해 새출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인적 분할한 한화인더는 합병을 통해 계열사간 시너지 확대에 경영 효율성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더욱 높여간다는 전략이다.

이번 합병에 따라 한화비전은 보안(시큐리티) 사업과 함께 한화정밀기계와 기타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해외 법인들을 100% 자회사로 둔 통합 법인이 됐다.

통합 법인 체제가 되면서 주요 계열사인 한화정밀기계의 반도체 장비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양성운 기자

삼성전자, CES서 'AI 게이밍 모니터' 공개

삼성전자가 7일부터 10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서 한층 고도화된 인공지능(AI) 기능과 게이밍 기술을 탑재한 모니터를 대거 공개한다.

우선, 삼성전자는 자발광 OLED 패널을 탑재하고 AI 기능을 강화한 2025년형 스마트 모니터 M9(M90SF)을 공개한다. 스마트 모니터 M9은 제품에 탑재된 온디바이스 AI를 통해 PC 연결하

면을 분석해 콘텐츠에 맞는 최적의 화질을 제공하는 'AI 화질 최적화' 기능을 지원한다. 특히 게임의 경우 해당 게임의 장르까지 AI가 판별해 장르별 최적 화질을 제공한다.

답러닝 기반으로 입력 신호, 해상도, 영상 품질 등을 AI 학습·분석해 저화질 콘텐츠를 4K 고화질로 선명하게 바꿔주는 '4K AI 업스케일링 프로'도 지원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온누리상품권으로 즐기는 ‘스타가맹점’… 지역 경제도 UP

소진공,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생
성심당 1호점 시작으로 100호점 돌파
상품권 결제 할인… 앱서 검색 가능
이벤트로 주변 상권 매출 상승 효과
차 이사장 “가맹점 홍보 강화 예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해 스타가맹점으로 지정한 전국의 인기 맛집들이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유명 빵집을 찾아다니는 ‘빵지순례’ 명소인 대전 성심당, 강원도 속초 중앙시장 명물 만석닭강정, ‘힙당동(힙+신당동)’의 MZ세대 떡볶이 맛집 마복림 할머니집 등이 모두 스타가맹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2일 소진공에 따르면 스타가맹점은 전국 1800여 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운데 인지도와 화제성, 파급력이 뛰어난 곳을 기준으로 선별해 현재까지 전국에 총 100곳이 있다.

1호점인 대전 성심당을 시작으로 100호점인 제주 레인보우제주까지, 지역별로는 ▲서울 21곳 ▲경기 7곳 ▲대전·세종 7곳 ▲인천 5곳 ▲대구 4곳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해 7월 속초 만석닭강정에서 진행한 이벤트 행사장에서 고객들이 닭강정을 구입하고 있다. /소진공

부산 8곳 ▲광주 5곳 ▲울산·경남 8곳 ▲경북 4곳 ▲제주 3곳 ▲전남 4곳 ▲전북 4곳 ▲충남 4곳 ▲충북 5곳 ▲강원 11곳을 지정했다.

스타가맹점의 가장 큰 매력은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더욱 싼 금액으로 이들 맛집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앱을 통해 사용하는 디지털 상품권인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상품권 구매를 위해 은행을 방문

하는 번거로움 없이 1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가맹점 여부는 온누리상품권 앱의 ‘가맹점 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순한 맛집의 의미를 넘어 지역사회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으며 각 지역 대표 점포로 자리 잡은 스타가맹점은 소진공과 협업한 다양한 행사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소진공은 매달 1곳의 스타가맹점과

함께 오프라인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다. 대중 인지도가 높은 스타가맹점을 중심으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입률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의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취지이다.

지난해의 경우 5월 대전 성심당을 시작으로 서울 신당동 우정 및 마복림떡볶이(6월), 속초 만석닭강정(7월), 부산 고래사어묵(8월), 서울 망원시장 우이

락(9월), 경기 수원 진미통닭(10월), 광주 송정떡갈비(11월)와 협업해 선착순으로 카드형 상품권 쿠폰을 지급하는 오프라인 행사를 이어왔다. 2024년 마지막 협업 이벤트는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이레상회(12월)에서 펼쳐졌다.

이벤트 참여로 카드형 상품권 쿠폰을 받은 고객들은 스타가맹점은 물론 해당 점포가 위치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소진공 박성호 이사장은 “스타가맹점과 오프라인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온누리상품권 앱 신규 가입자 8000여 명이 확보했으며 스타가맹점의 온누리상품권 매출액은 평균 2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스타가맹점이 속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온누리상품권 매출액이 114% 늘어나 스타가맹점 도입이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진공은 이외에도 온누리상품권 공식 홈페이지에 ‘스타가맹점’ 메뉴를 개설했다. 소진공 SNS 채널을 통해 지역별 스타가맹점을 ‘온세권’으로 이름 붙여 소개하는 등 본격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2025년, AI·혁신 통한 미래 준비”

주요 국내기업, 신년사 발표
고객 경험 중심 차별화된 가치 창출
기업 간 협업 통한 B2B 성과 집중

삼성, LG 등 국내 전자업체와 이동사들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혁신을 통한 재도약을 강조했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 대신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과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이 공동명의로 신년사를 발표했다.

한종희·전영현 부회장은 “지금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의 변곡점을 맞이해 기존 성공 방식을 초월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고도화된 인텔리전스를 통해 올해는 확실한 디바이스 AI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AI가 만들어가는 미래는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새로운 제품과 사업,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조기에 발굴하고 미래 기술과 인재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현재의 위기는 일시적이며 더 큰 도약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성과 창출로 이어질 R&D(연구·개발)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은 “올해는 AI 시대 물결 속에서 기술 개발, 경영, 생산, 마케팅 등 더 많은 분야의 도전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자랑스러운 지난 역사에서 그랬듯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더 큰 성공과 발전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 부회장



유영상
SK텔레콤 CEO



김영섭
KT 대표이사

말했다.

디스플레이 업계도 축적된 노하우로 신기술을 발굴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정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은 “올해는 사업 확대의 대(大)전환기”라며 “폴더블 기술 완성, 8.6세대 정보기술(IT)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양산기술 확보, IT·오토(Auto) 사업 확대를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정철동 LG디스플레이 사장은 한빠른 실행력을 통한 고객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정 사장은 “2025년은 추진 중인 모든 사업 과제들이 보다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해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빠른 실행력으로 무장해 진정한 변화를 창출하고 고객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통신 3사는 AI를 통한 성과 창출을 내세웠다.

유영상 SK텔레콤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AI가 실질적인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통신과 AI 두 축을 기반으로 글로벌

별 AI 컴퍼니로 전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면 결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사장은 “기존 통신 사업의 패러다임을 AI를 통해 완전히 전환해 나가겠다”면서 “자유로운 수평적 소통으로 유연성을 확보하고 사업-공유 인프라-스태프 조직이 하나로 결집해 단단한 팀워크를 만들어 나가자”고 덧붙였다.

KT 김영섭 대표는 주요 임원, KT 그룹 직원 50여명 등과 신년 맞이 타운홀 미팅을 열고 “올해 중점 목표 중 첫 번째는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업을 바탕으로 기업 간 거래(B2B)사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LG유플러스 홍범식 사장은 신년사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하는 길은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 고객 경험의 가치를 잘 이해하는 플랫폼 기업 등 다양한 파트너들과 생태계를 구성해 경쟁자들이 넘보지 못하는 독점적인 진입장벽을 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CJ대한통운 “휴일에도 택배 받아요”

5일 일요일부터 서비스 시작

국내 택배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이 ‘주7일 배송’을 본격화하며 택배시장에 불을 지피고 있다.

CJ대한통운은 2025년 첫 일요일인 오는 5일부터 주7일 배송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이 주7일 배송을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은 한층 편리한 온라인 쇼핑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또 주말에 온라인쇼핑을 즐기는 소비자들이 지금보다 1~2일 더 빠르게 상품을 받아볼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말을 겨냥한 다양한 이벤트나 프로모션도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소진공, 조직개편으로 경영안정 강화

7본부 체제로 재편… 인사발령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무중심의 조직개편을 통해 대내외 정책 환경 변화 대응에 적극 나섰다.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사발령도 실시했다.

소진공은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6본부 1연구센터 22실 8지역본부’에서 ‘7본부 1연구소 23실 8지역본부’로 변경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 재도전 지원, 비용부담 완화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화를 위해 재가지원본부를 경영안정본부로 개편했다. 지난달 2일 민생토론회의 일환으로 해당 본부 내 현장

코로나 엔데믹 이후 성장세가 주춤하던 이커머스 시장도 변화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일부 플랫폼에서만 가능하던 휴일배송이 보편화되면서 이커머스 업체들은 자체적인 물류시스템 구축 없이도 주7일 판매와 배송이 가능해진다. 풀필먼트 서비스와 결합할 경우 밤 12시 이전에만 주문하면 언제든 다음날 상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구매자들에게 최고 수준의 배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초기 주7일배송 서비스 권역에는 배송밀집도가 낮은 일부 읍·면 지역은 제외된다. 다만 향후 주7일 배송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물량이 증가하면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7일 배송과 함께 택배기사들은 주5일 근무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김승호 기자

애로대응팀을 신설해 4대 생업피해를 총괄 관리한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방안 발표 후속조치로 상품권유통관리팀을 신설하고 현 온누리상품권사업점검단(TF)을 정규조직화해 운영한다.

지역소멸 위기·내수경기 침체 등의 위기 극복을 위해 골목형상점가육성팀도 신설해 지역상권 활성화의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이밖에 경영관리 및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ESG혁신실을 ESG평가본부로 격상하는 등 주요현안 대응 및 경영관리 강화를 고려해 조직을 개편했다. /김승호 기자



칠레 최정상 아이콘 와인
몬테스

폐장일까지 들썩거린 ‘정치테마주’

비상계엄·尹 체포영장 청구 등에
李 테마주 오리엔트바이오 12.22% ↑
오리엔트정공도 주가 5.88% 올라
지난해 우원식테마주 대원전선도 급등

지난해 국내 증시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 등 정치적 이슈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2024년 코스피 주가 상승률 상위권에 정치테마주가 포진했다. 작년 마지막 거래일에도 정치테마주가 급등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린 모습이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12월 30일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종목은 오리엔트바이오로, 이날 상승률을 기록했다. 오리엔트바이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련주로, 이 대표는 과거 계열사인 오리엔트시계에서 근무한 바 있다. ‘이재명 테마주’가 상승한 배경에는 이날 공조수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에 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및 발부는 헌정사상 최초다.

오리엔트바이오는 지난해 154.85% 상승했으며, 오리엔트정공도 코스닥 시장에서 450.66% 급등했다. 새해 첫 거래일이었던 2일에도 오리엔트바이오는 12.22%, 오리엔트정공은 5.88%씩 상승했다.

또 다른 이재명테마주인 이스타코와 일성건설도 지난해에 각각 161.93%, 153.99%씩 올랐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테마주로 분류되는 대원전선도 157% 급등했다. 대원전선은 서명환 회장이 우 의장과 경동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지난해 코스피 주가 상승률 순위〉
(기간: 2024년 1월 2일 - 12월 30일)

종목	등락률
1 HD현대일렉트릭	364.72
2 삼양식품	254.17
3 SNT에너지	199.31
4 두산	171.57
5 이스타코	161.93
6 하이트론	161.33
7 대원전선	157.13
8 일진전기	156.11
9 가온전선	155.66
10 오리엔트바이오	154.86
11 일성건설	153.99

점에서 정치테마주로 꼽히고 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 수습 국면에서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였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정치테마주가 아닌 HD현대일렉트릭, 삼양식품이 각각 364.72%, 254.17%씩 오르면서 200% 이상의 주가 상승세를 기록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일부터 16일까지 정치테마주 지수의 일별 등락률은 최저 5.79% 하락에서 최고 12.98% 상승으로 상당한 변동성을 보였다. 같은 기간 코스피의 일일 최대 하락률은 2.78%, 상승률은 2.43% 수준이다. 다만 지수에 편입된 구체적인 종목명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정치테마주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특별단속반을 가동하고 집중 감시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특히 정치테마주는 통상적으로 주식에서 기업가치를 가늠하기 위해 활용되는 지표보다

〈지난해 연말 코스피 주가 상승률 순위〉
(기간: 2024년 12월 30일 = 마지막 거래일)

종목	등락률
1 오리엔트바이오	30.00
2 유니퀘스트	29.88
3 흥국화재우	25.00
4 한올바이오파마	15.20
5 경보제약	13.92
6 고아스	13.78
7 KC그린홀딩스	11.72
8 태양금속	10.24
9 이스타코	10.09
10 그린케미칼	8.24

/한국거래소

는 정치인과의 학연·지연 등으로 주가 급등락이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치테마주는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대감을 바탕으로 주가가 등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승했던 주가가 계속 유지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며 “주가가 다시 원상복귀하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고, 정치테마주 투자에는 가급적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김용구 상상인증권 연구원도 “이번 계엄령 선포·해제 사태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시장 상방 저항 강화와 함께 내부 정치 변수에 대한 의존적 주가 등락 흐름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당분간 정치테마주가 기승을 부릴 공산이 크나, 관련주의 말로는 언제나 비참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한투운용 “ACE ETF, 업계 최고수익 기록”

수익률 상위 10개 종목에 3개 상품 올라

권에 들었다”고 밝혔다.

“ACE 상장지수펀드(ETF)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적극적인 신규 상품 공급과 함께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은 콘텐츠 제공을 지속하며 업계 최고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맞춤형 ETF와 투자 콘텐츠를 새로 선보이는 동시에 기존 상품의 안정적 운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ETF운용본부장은 2일 지난해 자사의 ACE ETF 성과를 평가하며 새해의 각오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상장 ETF 가운데 지난해 한 해 동안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ETF는 ‘ACE 미국빅테크TOP7 Plus레버리지(합성) ETF’로 집계됐다. 수익률 상위 10개 종목에 3개 이상의 상품을 올린 것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유일했다.

한투운용 측은 “1년 수익률 기준으로 ▲ACE 미국빅테크TOP7 Plus레버리지(합성)(+197.07%) ETF ▲ACE 미국주식베스트셀러ETF(84.02%) ▲ACE 미국빅테크TOP7 Plus ETF(82.06%)가 지난해 연간 수익률 10위

이어 “점유율 상승세는 ETF 운용사 중 제일 컸으며, 이는 국내에서 ETF 사업을 영위 중인 26개 운용사 중 가장 큰 성장세다”라고 밝혔다. ACE ETF의 시장 내 점유율은 지난해 2023년 말 4.92%에서 2024년 말 7.56%로 2.64%포인트 증가했다. 순자산액은 2023년 말 5조7014억원에서 2024년 말 13조1256억원으로 130.22% 증가했다.

한투운용은 ACE ETF가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인 신규 상품 출시’ 덕분이라고 꼽았다. 한투운용은 지난해 한 해 동안 21개의 신규 상품을 선보였는데, 이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ETF 상품으로 처음 출시한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연간 상장 건수이다. 21개 상품 중에는 국내 최초 데일리옵션을 활용한 커버드콜 ETF 3종을 비롯해 빅테크 기업의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ETF 4종, 아시아 최초로 선보인 인도 액티브 ETF 2종 등이 포함돼 있다.

개인투자자 순매수 또한 꾸준히 유입됐다. ACE ETF로 지난해 한 해 동안 유입된 개인투자자 순매수액은 2조7645억원으로 집계됐다. /허정윤 기자 zelkova@



2025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국내 증시가 2일 2025년 개장식을 열고 새해 첫 거래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는 서울 사옥에서 ‘2025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을 진행했다. 개장식에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등 금융당국·자본시장 유관기관 수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강민국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 강준현 정무위 민주당 간사, 오기형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TF단장 등 정치권 인사들이 함께했다. /뉴스IS

“국장 매력없어”… 美로 짐싸는 개미들

(개인 투자자)

개인투자자, 지난해 5.3兆 순매도
신용융자잔액도 하반기 들어 급감
경제 불확실성·정치 리스크 등 영향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이탈,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 투자로 넘어가는 ‘머니무브’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지난해 코스피 시장에서 5조 3546억원을 순매도했다. 지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순매도세를 이어갔다. 투자자들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하는 데 사용했던 신용융자 잔액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신용융자 잔액은 15조8243억원으로, 7월까지만 해도 20조 원을 넘어서었으나 하반기 들어 급격히 감소했다.

이는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과 기업 실적 부진, 정치적 리스크가 결합해 국내 증시의 매력도가 급격히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관세 정책과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가 예고되면서, 국내 증시는 주요국 중 최하위권의 수익률



ChatGPT에 의해 생성된 개인투자자가 미국 주식으로 이탈하는 이미지.

을 기록하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여기에 기업들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가속화했다.

국내 증시에 이탈한 개인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테슬라 등 미국주식 투자로 눈을 돌렸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올해 초부터 지난 24일까지 미국 주식을 약 109억8769만 달러(16조1717억원)어치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보관액은 1175억9650만 달러(173조785억원)로 집계돼 연초 대비 74.6% 증가했다. 전문가

들은 경기침체로 인해 올해에도 국내 증시의 약세가 이어질 수 있어 미국 주식 싹쓸이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종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2기 정책의 영향을 강조하며, “관세 및 보조금 축소,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본국 회귀) 등 미국의 경제 정책 변화는 한국의 수출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반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관과 개인 자금이 해외로 흘러가는 수급 구조적 약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의 바닥 형성 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높일 만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와 기업 투명성 강화, 그리고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만 국내 주식시장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원관희기자 wkh@

“고액자산가, 올해 오리무중·교토삼굴 예상”

삼성증권, SNI 고객 341명 대상
주식시황 전망·투자계획 설문조사

연을 수 있음) 12.8% 등 대부분의 응답자가 녹록지 않은 2025년 새해 금융 시장을 전망했다.

국내 고액 자산가들은 올해 금융시장을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금융 환경’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준비해야 하는 금융 환경’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증권은 자산 30억원 이상 초고액자산가 서비스 ‘SNI’ 고객 341명을 대상으로 ‘2025년 주식시황 전망 및 투자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고액 자산가들은 새해 금융시장을 가장 잘 표현하는 사자성어로 ‘오리무중(갈피를 잡을 수 없는 금융 환경)’과 ‘교토삼굴(다양한 대안을 준비해 위기에 대응)’을 각각 30%씩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외에도 ‘전전공공(두려움이나 걱정으로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 14.1%, ‘고진감래(일시적인 손실이나 어려움을 견디고 버티면 결국 수익을

사자성어를 통해 바라본 고액 자산가들의 내년 주식 시장 기대감은 작년 대비에 비해 소폭 낮아졌다. 작년에는 ‘거안사위’, ‘다다익선’, ‘상전벽해’ 등을 선택해 긍정적인 시장을 전망한 응답자가 77%에 달했으나, 올해에는 그 비율이 50% 수준에 그쳤다. 새해 코스피의 연말 지수 상승률을 물어보는 질문에도 작년에는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 응답자가 약 80%에 육박했으나, 올해에는 51% 수준에 그쳤다. 응답자들이 선택한 2025년 코스피지수의 평균 등락률은 약 +5.2%로 나타났다.

신승진 삼성증권 투자정보팀 팀장은 “한국 시장의 상대 밸류에이션 매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하지만 국내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투심이 쉽게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세계교역 악화... 금융권 실물경제 강화로 악순환 끊어야”

인터뷰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올해 글로벌 교역환경이 가장 먼저 변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관세 인상과 이민 억제·감소 등으로 추려지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전쟁’이 현실화할 우려가 높아졌다는 진단이다. 우리 수출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중소기업자를 위한 지원책 확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 연구실장은 2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과의 인터뷰에서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금융업권 및 기업 자금조달 담당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금융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경기 부진이 신용공급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美 트럼프 행정부 2기 집권 이민억제·관세전쟁 현실화 우려 韓 수출환경 악영향 가능성 높아

◆ 올해 한국경제 주요 변수는?

김 연구실장은 2025년 한국 경제 향방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를 지목했다. 현재 한·미 내외금리차 역전폭은 1%포인트(p)를 초과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하 지연은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여력을 떨어뜨리고, 점진적으로 내수 회복을 해친다는 설명이다.

그는 우리나라에 미칠 또 하나의 변수로 중국경제의 회복 여부를 꼽았다.

그는 “현재 중국은 견조한 수출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성장세가 약화한 중국 경제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 및 IT 경기 향방 또한 경제의 중요 변수로 꼽았다. 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에 관한 수요가 올해도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범용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 업체들의 생산 확대와 기술력 향상이 가속하고 있어서다.

김 연구실장은 “반도체 산업의 전방산업인 정보기술(IT) 경기의 회복속도는 어떠한지, 중국 업체의 기술 발전이 어떠한 속도로 진행될지, 범용메모리 분야에서 중국 업체의 시장점유율 확대는 우리 수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등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선제적인 대응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 예를 들어 자금이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지원협의회의 회를 통한 지원을 확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실장은 “향후 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경우 정부가 원화유동성 및 외화유동성 관련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러한 대응 방안들이 적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산업별 성장전망과 금융권 대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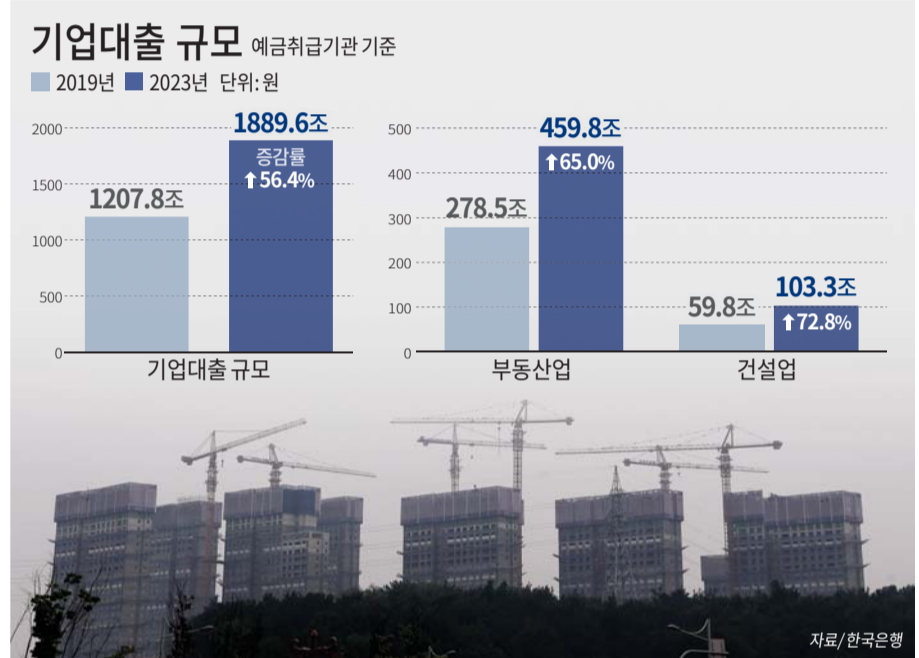
최근 한국 경제는 ▲내수 부진 ▲대의 불확실성 ▲국내 정치적 불안정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성장률 전망이 1%대로 낮아지고 있다. 그는 올해도 건설투자 분야의 부진이 지속할 것으로 관측했다. 선행지표인 수주가 감소세를 유지하면서다. 이어 소비 분야는 금리안하 기조에 따라 완만히 회복될 전망이다. 단 최근 국내 정치 불안정 등으로 지난해 12월 초 신용카드 사용액이 위축되는 등 회복 속도가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 연구실장은 수출 분야의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교역환경 악화가 예상된다.

김 연구실장은 “최근의 환율 상승(원화값 하락)이 수입 물가에 상방압력을 가할 것”이라며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유가 상승 가능성 등은 예외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금융연구원



“범용 반도체 中 점유율 확대 전망 원화·외화 유동성 대응책 마련을 환율 상승이 수입물가 상방 압력 정부, 단계별 비상대응 재정비해야 주식시장서 외국인 순매도세 지속 다행이 채권시장 순매수세 유지중”

김 연구실장은 내수 부진 정도를 주시하면서 긴축완화 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점진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되 최종(terminal) 금리수준은 경기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중립금리수준을 하회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일시적인 외화자금시장 경색 또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정부의 단계별 비상대응계획을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시장 불안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금융정책을 경기 대응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대출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급증 및 주택시장 과열로 연결될 경우 경기부양이 퇴색된다는 의미다.

김 연구실장은 “상환가능한 범위 내의 대출이라는 금융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되 취약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 소상공인이 내수 부진의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금융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5년 정치적 불안 여파 이어질까?

김 연구실장은 정치적 혼란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실장은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또한 주식에서는 순매도가 지속되고 있으나 이는 정치 이벤트 발생 이전 추세와 유사한 수준이며 채권시장에서는 순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스크 해소를 위해선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을 보여줌으로써 외국인들의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선 단계별 위기 대응 계획을 점검하고 위기 관리수단을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시장 안정화가 요구된다. 시장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실장은 “외국인 투자자와 글로벌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소통 채널 또한 강화해 한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복원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주요 약력

- 용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 뉴욕 로체스터대학교 경제학 석·박사
- 한국은행 조사역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3D프린팅으로 기관포 부품 등 혁신 K-방산, 방위산업 생태계 강화 기대

산업부-국방부, 국방분야 기술협력 방산부품 공급망·산업 생태계 구축 핵심부품 제작 기술력 확보 등 기대 MRO 기술, 선박 부품 제조 지원

정부가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구축한 엔진, 추진기, 기관포 부품 등 방산 분야 공급망과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3D프린팅 관련 시장 확대도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국방부와 '국방분야 3D프린팅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지난 2017년에도 3D프린팅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 부품 제조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에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왔다. 특히, 단종됐거나 조달이 어려운 군함, 전자 등의 부품을 대체해 무기체계 가동률을 높이고 3D프린팅 부품 제조기술력을 확보하는 등 성과를 창출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부처 간 협력을 지속·연장하고, 보다 고도화된 국방부품 제조능력 확보를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양 부처는 ▲부품 수요 발굴 및 실증 ▲기술개발 및 제조공정 데이터 베이스 구축 ▲부품 공급망 및 산업 생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태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에 협력하게 된다.

특히 이번 협약에 따라 핵심부품 제작을 위한 기술력 확보는 물론, 3D프린팅 부품 활용 확대에 따른 시장 확대도 기대되며, 관련 산업 생태계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성혁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은 "산업부가 축적해온 R&D, 인프라, 인력 등의 자산과 국방부, 생기원의 역량이 결합돼 다양한 성과 창출이 예상된다"며 "또 국방력 강화뿐 아니라 3D프린팅 업계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상생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이번 협약은 국방분야에 3D프린팅 기술의 확대 적용과 군의 자체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국방부품의 자체 제작능력 확보를 추진해 전투장비 가동률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3D프린팅의 소재·부품·장비·공정 연구개발을 지속해왔으며, 최근에는 3D프린팅 관련 디지털 전환과 운항 선박 내 유지보수 부품 자체 제조를 위한 3D프린팅 융합 실증기술(MRO)도 지원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그린바이오’ 기술로 농업 혁신 본격화

농식품부, 그린바이오 육성법 시행

그린바이오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돼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그린바이오산업은 그린바이오 기술을 사용해 농업과 농업 관련 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가리킨다. 종자·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동물용의약품 관련 산업이 대표적이다.

이 분야를 정책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그린바이오산업법이 도입됐다. 5개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맞춤형 지원을 위해 신고제 도입,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원 받으려는 기업은 요건을 갖춰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공공기관 등이 그린바이오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법령에 담겼다.

정부는 법 시행에 따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 기관으로 지정해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를 접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벤처·창업, 데이터 활용,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에 대한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공모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 연구·개발·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시설이나 원료 계약재배 등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린바이오산업은 최근 농업·농식품 분야에서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며 "그린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다각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공정위, 허위광고 중단해야 과징금 감경

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 개정·시행

앞으로 허위광고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에 협조하더라도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고시 개정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해 정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명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매출액과 무관하게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으로는 위반행위 전후 실적과 시장 상황 등을 토대로 정률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에 협조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과징금 감경(20%) 요건은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와 심의 단계에 협조한 경우를 나눠 각각 과징금을 10%씩 감경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공정위 조사·심의가 끝날 때까지 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면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협조 감경 제도를 정비해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무역통상 불확실성 여전... 수출 총력 지원”

안덕근 산업장관, 인천신항 방문 무역금융 360조 등 수출 지원 예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은 2일 “올해도 수출이 우리 경제를 이어나가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새해 첫 행보로 인천신항(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해 “글로벌 고금리·고환율, 트럼프 신정부 출범 등 우리 대외 무역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 장관이 방문한 인천신항은 우리 수출입 물류의 수도권 관문이자 2년 연속 역대 최대 컨테이너 물동량을 기록하며 글로벌 물류 허브로 성장 중이다.



안 장관은 지난해 1월 5일 취임 직후에도 첫 행보로 자동차 수출 물류 거점인 평택항을 방문한 바 있다.

안 장관은 “녹색지 않은 대내외의 수출 여건에도 수출원팀 코리아로 (지난해) 우리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쾌거를 거두며 우리 경제 펀더멘탈의 굳건함을 보여줬다”며 “1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1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나가며 수출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우리 수출의 투톱인 반도체는 최초로 1400억달러를 돌파하고 자동차는 2년 연속으로 700억달러 이상

의 실적을 달성하는 한편, 한류 열풍의 기회로 K-푸드(농식품) 수출은 역대 11월말 누적 기준 최대인 90억달러,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도 최초로 10억달러를 기록했다.

안 장관은 올해 우리 수출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무역금융 360조원 공급하고, 해외전시회·무역사절단·수출상담회 등 수출지원에 역대급인 2.9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다각적인 소통채널을 활용한 한미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와 국가별 맞춤형 통상협정 체결·협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7억2429만톤

환경부, 유엔 제출 통계 확정 전 분야 전년 대비 2.3% 감소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등 전 분야에서 감소해 전년 대비 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

출량을 7억2429만톤(t)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021년 배출량인 7억4098만t 대비 1668만t(2.3%) 감소한 수치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매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공개하고 있다.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등 전 분야에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냉장·냉방기기의 냉매가스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s) 사용량 증가로 산업공정 분야 중 ‘오존층과 파괴물질(ODS)의 대체물질 사용’ 부문에서 2021년 대비 약 280만t(9.5%)이 증가했다.

모든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은 파리협정의 세부이행지침에 따라, 새로운 국제기준인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정지침’을 적용해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4000여개 ‘평생교육기관’ 정보 첫 공시

온국민평생배움터서 확인 가능

올해부터 초·중등과 고등 학력을 인정하는 국내 4000여개 평생교육기관도 일반 대학처럼 수업료와 전임교원 현황 등 교육 인프라 정보가 공시된다. 학습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평생교육시설 책무성·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해 개정된 평생교육법 및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 평생교육기관 정보공시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삼성전자공과대학, SPC식품과학대학, LH토지주택대학, 포스코기술대학 등 4개 사내대학과, 영남사이버대학교, 세계사이버대학교 등 2개 원격대학을 비롯해, 백제예술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 등 전문대학이나 대학의 학

위인정시설을 포함해 4066개가 있다.

최초 공시는 지난해 12월31일로, 총괄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교육부장관 소관 평생교육시설 388개와 시도교육감 소관 평생교육시설 3678개 공시 자료를 수합해 일괄 공시됐다. 최초 공시 이후에는 항목별로 정해진 시기에 공시하게 된다.

공시 범위와 시기는 ▲고등학교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매해 5월, 9월)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4월, 6월, 8월, 10월) ▲그외의 평생교육시설(5월) 등 공시 대상에 따라 구분된다.

공시 정보는 온국민평생배움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실에는 평생교육시설이 유형·지역별로 구분돼 있으며, 국민 누구나 별도 회원가입 없이 해당 정보를 내려받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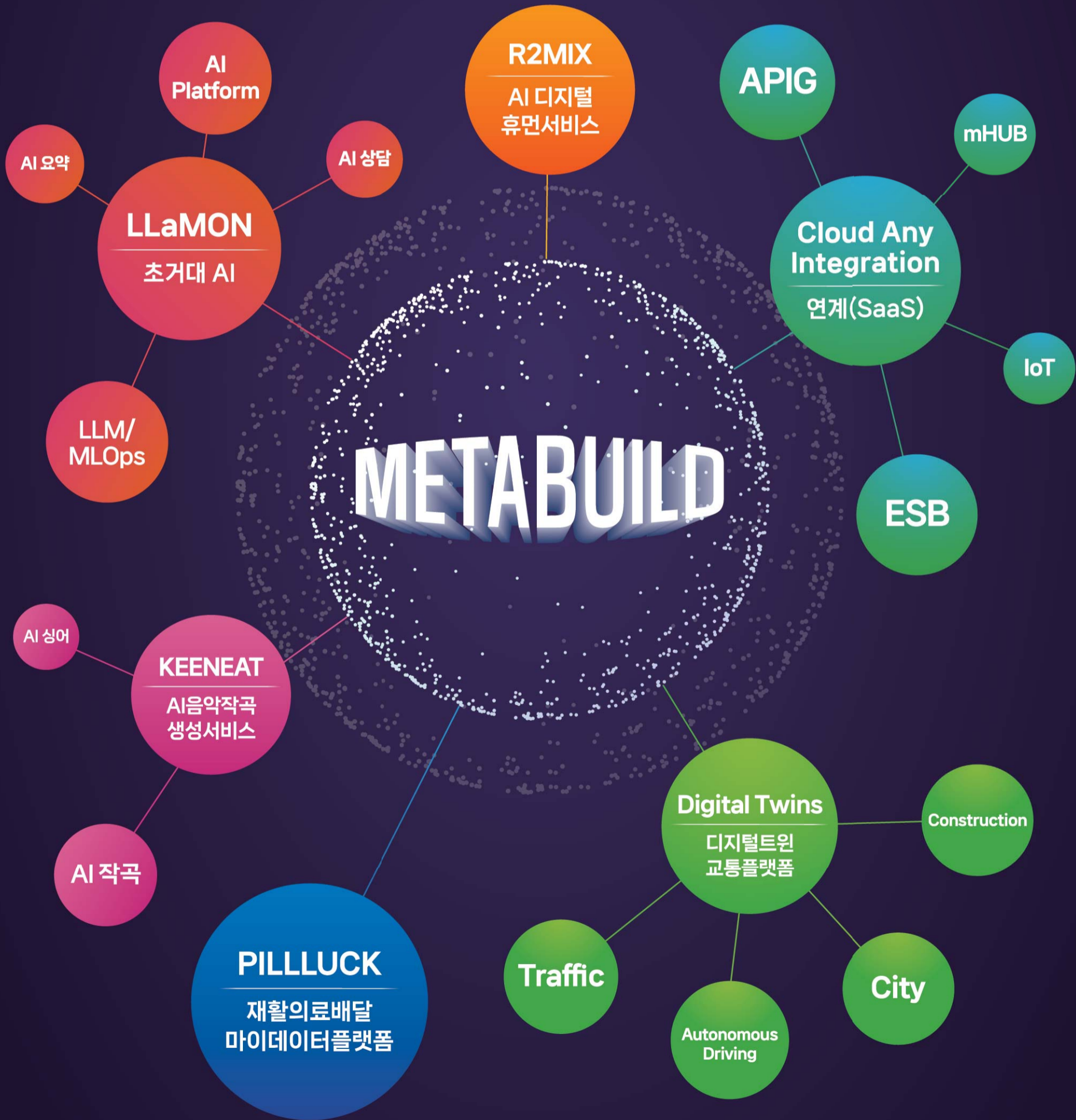
/이현진 기자 lhj@



AI · Cloud · 연계 플랫폼 초월 기업

AI LLaMON Platforms

연계통합 미들웨어 · 디지털 트윈 플랫폼 시장점유율 1등 기업



내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첫삽'

“韓 라데팡스·대중교통 허브 도약”

코엑스 사거리~삼성역 사거리 구간 21만㎡ 규모 광역복합환승센터 철로·도로, 대규모 녹지 광장 조성

서울 강남 코엑스와 삼성역 사이에 광역복합환승센터 등을 조성하는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 개발 사업'이 첫삽을 뜬다.

서울시는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 개발 2공구 건설 공사(건축·시스템)' 기술제안서 및 우선 시공분 실시설계가 적격 판정을 받고 공사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내달 중 우선 시공분인 ▲2호선 삼성역 승강장 철거 ▲광역복합환승센터 GTX-A 기능실(전기·통신기계실) 마감 ▲본선 환기구 공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2공구 건설 공사는 2021년 착공해 현재 굴착 진행 중인 토목 공사와 연계해 이뤄진다.

본 사업은 코엑스 사거리(9호선 봉은사역)~삼성역 사거리(2호선 삼성역) 약 1000m 구간 지하에 21만㎡ 규모의 광역복합환승센터와 철로·도로를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 개발 사업 조감도. /서울시

만들고, 상부에 대규모 녹지 광장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 개발 건설 공사는 국제 교류 복합 지구 내 대중교통 등 기반 시설과 시민 편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시행된다. 시는 철도·버스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환승시스템을 구축,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대중교통 허브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실시설계가 완료된 우선 시공분은 다음달 공사를 시작하고, 본 공사는 15개

월간 실시설계 후 설계 경제성 검토(V E) 및 실시설계 적격 심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김창환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혼잡하고 노후했던 삼성역~코엑스 일대가 대규모 지하공간 통합 개발로 '한국판 라데팡스'라 불리는 생활·일자리 거점이자 첨단 대중교통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일정을 착실히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인천시,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확정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등 법률 반영

인천광역시시는 지난해 12월 31일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확정하고 이를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상위계획의 수립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 변화된 정책 환경에 맞춰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담고 있다.

변경안은 상위계획인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과 최근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철도지하화 특별법' 등 관련 법률을 반영해 수립됐다. 특히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 제시한 비전인 '살기 좋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 통합의 수도권'을 수용해 인천의 미래상을 '어디서나 살기 좋은 글로벌 도시 인천'으로 설정했다.

이번 계획은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균형 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도시 외곽의 공유수면 매립지에는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마련된 이후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시차지역제(Timing Zoning)가 도입됐다.

이를 적용해 북성포구 상업용지를 보전용지로 전환해 시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즐길 수 있는 수변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포함됐다. 인천의 탄소배출량 중 57.1%가 발전 부문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2045년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영흥화력발전소 부지를 조정하고 체계적 발전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계획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조기에 실현할 방침이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

'TK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방채 한도액 초과발행 근거 마련

대구시는 12월 31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 발의, 1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 대구광역시 직접 공영개발방식을 위한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민·군 공항 통합건설) 및 토지 조기 보상, ▲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근거 조항들이 담겨 있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대구시가 직접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 정부로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공항 건설 설계 및 토지 보상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주호영 의원은 여당 원내대표 재임 시절 지역 정치



대구시청 산책청사 전경.

권의 역량을 결집하고 정부와 야당을 설득해 TK신공항특별법 제정에도 기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의되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의 미래 100년 변명을 위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국회 심사를 앞둔 2차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및 관계 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김준한 기자 kih9@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750억 규모 발행

25개 자치구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 1인당 월 30만원까지 살 수 있어 오는 8일 출생연도 따라 판매

서울시는 오는 8일 25개 자치구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한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을 75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5% 할인된 가격으로 1인당 월 30만원까지 살 수

있다. 보유 한도는 100만원이며, 구매 일로부터 5년 이내 사용 가능하다. 현금(계좌이체)으로 산 경우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썼다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시는 동시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출생 연도(주민등록번호 둘째 자리)에 따라 '홀수'는 오전 10시~오후 2시, '짝수'는 오후 3시~오후 7시로 나눠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게 했

다. 발행 금액은 오전·오후 각 375억원씩 총 750억원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조기 발행이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불합리·불필요 규제 집중 신고제 시행

서울시는 3일부터 오는 4월 12일까지 지정 분야를 대상으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 집중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접수된 신고 중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서울시장 주재 '규제 철폐 회의'에 상정,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없앨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을 제약하거나 시민 불편을 일으키는 불합리한 규제 신고는 '규제 개혁 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과 소상공인 활동에 장애가 되는 경제·민생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선적으로 찾겠다"며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이주호 "올해 고교학점제·AI 교과서 도입"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

전국 17개 지자체서 라이즈 체계 가동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체계 가동, 고교학점제 시행,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추진 등 2025학년도 교육계의 본격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2일 교육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2025학년도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고,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 대전환으로 개인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예정"이라며 "또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라이즈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지자체와 대학이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지역의 변화도 시작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역 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대학이 가진 강점과 지역 시정을 누구보다 아는 지자체의 전문성이 결합된 다



양한 혁신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교육 현장을 돌이켜 보며 "2024년 역시 2023년과 마찬가지로 숨 가쁘게 달려온 것 같다"고 회고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개혁 과제를 3대 분야, 9대 과제로 선정해 당면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재편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국가책임 교육·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올해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변화는 우리가 나아가는데 필요한 중요한 밑거름이자 자산이니 우리나라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덧붙였다.

/이현진 기자 lhj@

경북도, 中企·소상공인에 6000억 지원

중소운전자금, 소상공인육성자금

경북도가 올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60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2일 경북도에 따르면 특별경영자금은 도내 중소기업에는 4000억원이 중소기업운전자금으로 지원되고, 소상공인에게는 2000억원이 소상공인육성자금(경북버팀금융)으로 지원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달 열린 긴급민생안정 대책 회의에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 관광 분야 등 5대 분야에 대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올해 지원되는 중소기업운전자금은 중소기업이 협력 은행에 융자 대출을

하면, 경북도가 대출금리 일부(1년간, 2%)를 지원하는 2차보전 방식으로 운용한다.

기존 지원 방식에서 올해는 한시적으로 2%를 추가 지원해 1년간 4%의 이자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육성자금(경북버팀금융)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 및 대출이자(2년간, 2%)를 지원한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대출이자 3%와 보증수수료 0.8%를 지원한다.

특별경영자금 대출한도는 매출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운전자금 최대 3억원,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최대 3000만원이며, 도가 지정한 우대기업은 중소기업운전자금 최대 5억원,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 추천이 가능하다. /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연초부터 명품가격 인상에... 백화점 “매출 떨어질까” 한숨

태그호이어, 일부품목 가격 올리고
브라이틀링, 전품목 평균 8% ↑
디올·샤넬·에르메스 등도 인상
업계, 명품매출 신장률 하락에
백화점 전체 매출 하락 부추겨



에르메스 명품점 앞을 지나가는 시민의 모습. /뉴시스

국내 백화점들이 리뉴얼 전략의 일환으로 명품관 강화에 집중하는 가운데 새해부터 명품 브랜드들이 가격 인상을 단행하면서 명품 소비 위축에 따른 백화점 매출감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해외 명품 브랜드들이 새해를 맞아 일제히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연말 환율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올해 명품 가격 상승 폭이 더욱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새해부터 명품 시계 브랜드들이 가장 먼저 가격 인상을 단행한다. 프랑스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의 시계 브랜드 태그호이어는 이달 2일부터 일부

품목의 가격을 인상한다. 롤렉스도 가격 인상에 나섰다. 롤렉스는 지난해 1월 가격을 약 8% 올린 데 이어, 6월에도 5% 수준의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 브라이틀링도 오는 20일부터 전 품목의 가격을 평균 8%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디올·샤넬·에르메스·루이비통·구찌 등 주요 명품 브랜드들도 가격 인상에 동참한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는 오는 3일부터 가방, 의류, 장신구 등을 중심으로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다. 품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평균 10% 이상 인상이 예상된다는 업계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내 백화점들이 명품관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명품 업계의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더현대 서울은 지난달 20일 프라다, 루이비통 남성 매장을 새로 오픈하며 명품 브랜드 강화에 나섰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이번을 기점으로) 더현대 서울의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수는 총 58개가 됐다”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63%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지난해 6월 기준 남성 럭셔리 층을 1100여 평에서 2100평으로 확장하며 42개 명품 브랜드를 선보여 국내 최대 규모의 남성 명품관을 조성했다. 롯데백화점 본점 역시 올해 명품관 재단장을 앞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명품 가격 인상은 고환율과 지속적인 금값 상승 이슈에 따

른 것”이라며 “전반적인 경제 불황과 명품 가격 인상이 계속 맞물리면, 명품 소비 시장이 앞으로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명품 시장의 위축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의 명품 매출 신장률은 지난해 1분기 10.1%에서 3분기 6.6%로 하락했다. 롯데백화점 역시 지난해 1분기 10%에서 3분기 5%로 명품들의 매출 증가세가 떨어졌다. 현대백화점은 1분기 11.3%에서 2분기 12.3%로 잠시 성장했으나, 3분기에는 다시 11.6%로 하락했다.

이는 전체 매출감소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신세계백화점의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은 8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했다.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역시 3분기 영업이익 각각 707억원, 64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 12.7% 감소한 바 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풀무원, 이우봉 CEO 취임... “글로벌 No.1 위해 최선”

2기 전문경영인 체제 출범
“조직문화 쇄신·디지털 전환 노력
식물성 지향 등 4대 실천과제 선정”



2일 서울 수서 본사에서 열린 총괄CEO 이·취임식에서 신임 이우봉 총괄CEO(왼쪽)가 이효율 풀무원 이사회 의장(오른쪽)에게 감사제 전달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풀무원

풀무원이 새해를 맞아 이우봉 신임 총괄 최고경영자(CEO·대표이사)가 취임하며 2기 전문경영인 체제로 새롭게 출범한다.

풀무원은 2일 서울 수서 본사에서 신임 이우봉 총괄CEO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경영활동에 나섰다

이날 취임식에서 이 총괄CEO는 “이효율 총괄CEO에 이어 3대 총괄CEO의 막중한 중임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제 뒤에는 회사의 가치와 바른 먹거리 전파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노력하시는 1만여 조직원 여러분이 있어 마음이 든든하며, 앞으로의 도전적인 미래 여정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는 “풀무원의 바른먹거리 개념을 지속가능식품과 지속가능식생활로 확장하고 글로벌 K푸드 식문화의 핵심으로 발전시켜, 풀무원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NO.1 지

속가능식품기업이자 지속가능식생활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빅데이터와 AI가 중심이 되는 지식 혁명시대에 지식작업자인 풀무원의 조직원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획기적으로 쇄신하고, 디지털 전환(DX)과 프로세스 혁신(PI)을 가속화하여 풀무원이 한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미래 스마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올해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시국 변동성으로 인해 지금껏 경

험하지 못한 어려운 경영환경이 예상되고 있다”며 “우리 회사는 올해의 핵심 경영과제를 전사의 중장기 4대 핵심전략(식물성지향, 동물복지, 건강한 경영, 친환경 케어)과 연계한 실천적인 4대 과제로 정하여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비하고 제2의 도약을 위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풀무원은 2025년 4대 핵심 실천과제로 ▲지속가능식품 확장 ▲글로벌 시장 확대 ▲ESG 경영 강화 ▲푸드테크 통한 미래 대응으로 정하여 핵심사업 전략과 미래 먹거리 성장동력의 방향

성을 명확히 했다. 지난 7년간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이효율 총괄CEO는 이사회 의장 역할을 수행하며, 풀무원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풀무원은 지난해 12월 정기이사회에서 이우봉 풀무원 전략경영원장을 차기 총괄CEO로 선임했다.

한편, 풀무원은 2기 전문경영인 시대를 맞아 신임 이우봉 총괄CEO와 핵심 경영과제를 함께 수행해 나갈 주요 계열사 대표 및 지주사의 핵심 보직자를 새로 선임하고, 임원 직급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풀무원은 이우봉 총괄CEO와 이효율 이사회 의장, 이우봉 풀무원 전략경영원장, 이우봉 풀무원 전략경영원장을 각각 선임하였으며, 풀무원의 R&D센터인 풀무원기술원 신임 원장에 김태석 연구개발실장을, 풀무원의 전략과 재무를 총괄하는 경영기획실장에 김종현 재무관리실장을 각각 선임했다. 또 풀무원 류태상통합운영담당과 풀무원푸드엔컬처 김중화 경영지원실장 등 임원 2명에 대한 직급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홈플러스 ‘A.P.T. 전략’ 앞세워 매출·고객확보 등 성과

홈플러스는 2일 ‘A.P.T. 전략’을 앞세워 매출 상승과 신규 고객 확보에 성공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초대형 식품 전문 매장인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의 성과가 3년 연속 매출 증가를 견인했다는 게 홈플러스 측 설명이다.

홈플러스 ‘A.P.T.’는 ▲연관 진열(Associated display) ▲물가안정(Price stability) ▲테넌트(Tenant, 세입자) 전략의 약자로, 관련 상품을 가까이 배치하는 연관 진열,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제공하는 물가안정, 외부 브랜드와의 협력을 통해 매장 공간을 운영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최근 홈플러스는 ‘연관 진열’ 전략의 일환으로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의 쇼핑 동선을 고객 중심으로 전격 개편하는가 하면, 고객의 쇼핑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연관 진열’을 선보였다. 고객들이 가는 곳마다 관련된 빠르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 진열을 강화한 게 핵심이다.

이에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33개 점포는 리뉴얼 전 대비 지속 성장 중이라는 게 홈플러스 측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재단장한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라이브’ 강서점은 오픈 일주일 만에 신선식품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했다. 지난해 2022년 초부터 진행한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통해 대규모 할인 행사와 품목별 할인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연말 세일 ‘홈플러스 대란’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AI 메가하트’ 코너가 매출 증대를 이끌며 점포별 매출이 전년 대비 최대 97% 증가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입점 업체와 협력하는 ‘테넌트’ 전략도 확대한다. 과거 가족 단위 고객을 겨냥한 키즈카페, 어린이 수영장 등 공간을 운영했던 홈플러스는 최근 2030세대 고객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 입점을 늘리며 젊은 층 공략에 나섰다. /안재선 기자

SPC, 美서 1000만 弗 지원... 텍사스에 제빵공장 짓는다

美·캐나다, 향후 중남미까지
베이커리 제품 공급 생산시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이 미국 텍사스 주에 제빵 공장 건립을 추진한다.

SPC그룹은 텍사스(Texas) 주 존슨 카운티(Johnson County)에 속한 벌리슨 시(City of Burleson)를 공장 후보지로 정하고 지방 정부와 투자 계획

및 지원금에 대해 최종 조율 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 협의가 마무리 된다.

텍사스 주는 미국 중심부에 있어 미 전역과 캐나다·중미 지역에 물류 접근성이 좋다. 투자 기업에 대한 지방 정부의 유치 인센티브와 고용 환경 측면에서도 장점이 많은 비즈니스 친화 지역으로 평가 받는다. 존슨 카운티와 벌리슨 시 지방 정부는 이번 공장 투자 유치를 위해 파리바게뜨에 약 1000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SPC그룹의 미국 제빵 공장은 파리바게뜨 매장이 확산 중인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해 향후 진출 예정인 중남미 지역까지 베이커리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 시설이다. 이 공장은 투자금액 약 1억6000만 달러, 토지 넓이 약 15만㎡(4만5000평)로 SPC그룹의 최대 해외 생산 시설이 될 전망이다. SPC그룹은 중국 텐진에서 제빵 공장(2만800

㎡)을 운영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의 할랄 인증 제빵 공장(1만6500㎡) 완공을 앞두고 있다.

현재 파리바게뜨는 해외 14개국에 600여 매장을 운영 중이다. 그 중 미국과 캐나다에 200여 개가 있다. 북미가 맹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으면서 매장 증가 추세가 속도가 붙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품 공급량도 꾸준히 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2030년까지 북미 지역에 1000개 매장 개설을 목표로 세웠다. /신원선 기자

K-제약바이오, 임상·기술 수출로 글로벌 시장에서 '우뚛'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성과 가속
유한양행 '렉라자', 유럽 품목허가
위장관 치료제 글로벌 임상 진행
알테오젠 피하주사 제형 기술 공략

2025년에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 및 기술수출 성과가 K제약·바이오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와 존슨앤드존슨의 '리브리반트(성분명: 아미반타맵)' 병용요법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유럽에서 최종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다. 국산 항암제인 렉라자가 같은 용법으로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받은 데 이어 유럽 의약품 시장에도 진출한다.

유한양행은 일찍이 2018년 11월 렉라자를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드존슨과 회사인 안센에 기술수출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유한양행은 기술수출로 자사가 발굴한 신약 후보물질을 상업화하고 로열티 수익도 증대하기 위한 전략을 지속 펼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유한양행은 지금까지 총 4조 7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유한양행에 따르면, 퇴행성디스크 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YH14618'의 경우 미국 스핀바이오에 기술수출됐고 현재 미국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다.

또 유한양행이 미국 파트너사 프로세스 파머슈티컬에 기술수출한 위장관 질환 치료제 'YH12852'은 임상 2a상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인공지능이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연구원을 표현한 이미지.

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MASH)을 치료하기 위한 융합 단백질 'BI 3006337'도 임상에 진입한 파이프라인으로, 유한양행은 글로벌 빅파마 베링거인겔하임과 해당 물질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바이오 기업 알테오젠은 제형 변경 기술을 앞세워 글로벌 의약품 시장을 공략한다.

알테오젠이 개발한 히알루로니다제 'ALT-B4'는 기존 정맥주사제제를 피하주사 제형으로 대체하는 기술이다. 알테오젠은 피하주사제 의약품 개발하는 글로벌 제약사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해 기업 입지를 다지고 있다. 항체 기반 치료제에 주로 적용하던 피하주

사 제형 변경 기술은 저분자화합물, 항체·약물접합체(ADC), 이중항체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알테오젠 측의 설명이다.

알테오젠은 지난달 3일 ALT-B4를 기술수출한 파트너사 일본 제약사 다이이찌산쿄로부터 계약금 2000만달러를 수령했다. 양사는 ALT-B4를 활용해 ADC 치료제 '엔허투'의 피하주사 제형을 개발하고 있다.

또 알테오젠은 글로벌 빅파마 머크에도 ALT-B4 기술을 공급하고 있는데, 머크는 지난해 11월 알테오젠의 ALT-B4 기술을 도입한 '키트루다' 피하주사 제형 임상 3상을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머크의 대표 블록버스터 제품

인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피하주사 제형으로 개발되는 경우, 알테오젠은 자사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입증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밖에 유망 분야 중심으로 기술수출한 성과가 기업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도 있다. 항체·약물 복합체(ADC) 선두주자 리가캠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 연속으로 ADC 기술수출 성과를 올려 왔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24년 10월 일본 오노약품공업과 체결한 계약은 다양한 고형암을 적응증으로 하는 비임상 단계의 LCB97에 관한 것이다.

리가캠바이오사이언스가 앞서 기술수출한 ADC 프로젝트 가운데 LCB14, LCB71, LCB84 등은 현재 글로벌 임상 단계에 진입해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리가캠바이오사이언스의 중국 파트너사인 시스톤 파마슈티컬스는 지난달 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LCB71' 임상 1b상에서 첫 환자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LCB84는 지난 2023년 12월 글로벌 제약사인 존슨앤드존슨에 기술이전됐고 현재 임상 1상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기술수출, 공동개발 등 지금까지 지속해 온 성과에 따라 경쟁력이 차별화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기업 입장에서 수의 창출력을 증명해 매출 실적뿐 아니라 향후 투자나 파트너십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종근당

글로벌 '혁신신약' 도전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 구축할 것"

종근당은 서울 충정로에 위치한 본사에서 '2025년 시무식'을 갖고 본격적인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종근당에 따르면 올해 시무식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효종연구소와 천안공장에 공유됐다.

이장한 종근당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경영효율의 극대화를 목표로 현실적인 전략 수립과 실행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자원과 역량을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연구개발 부문에서 보다 혁신적인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시스템을 기반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종근당은 합성 신약, 항체·약물접합체(ADC)를 비롯한 항체치료제, 세포·유전자치료제(CGT) 등 차세대 의약품 분야에서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2일 유한양행 본사에서 열린 '2025년 시무식'에서 조옥제 유한양행 사장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유한양행

"확률형 아이템 조작 시 3배 배상"

게임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게임사, 고의·과실 입증 책임져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비율이나 당첨률 등의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최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김승수 의원, 이기헌 의원, 강유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병합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상정된 것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며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를 3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하는 한편 ▲게임사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실은 게임사가 증명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실시된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제도'를 보완하는 후속 조치다.

협회는 지난해 4월, 22대 국회를 대

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및 '입증책임 전환제도' 도입에 관한 공개 정책 제안을 진행했으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재차 요청해 온 바 있다.

현행법에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 겸 게임 전문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 산업의 기반이 되는 이용자 신뢰 확충과 투명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행위나 과실에 의한 확률 오표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직원의 실수(휴먼에러)나 시스템 상 오류(버그)로 인한 적용 확률과 표시 정보의 불일치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빛나 기자 vitna@

일회용 인공눈물 '프렌즈 아이원 쿨' 선포

JW중외제약 눈 표면에 보호막 형성

JW중외제약은 일회용 점안제 브랜드 '프렌즈 아이드롭'에서 신제품 '프렌즈 아이원 쿨'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JW중외제약에 따르면, '프렌즈 아이원 쿨'은 일반의약품으로 안구 건조, 바람과 태양에 의한 화끈거리는 증상, 눈의 불쾌감 등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눈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 이 제품은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을 유효 성분으로 함유하고

있어, 눈 표면의 수분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눈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 바람, 먼지, 건조한 공기 등 외부 자극으로부터 각막을 보호한다. 이와 함께 프렌즈 아이원 쿨에는 L-멘톨 성분이 함유된 것이 특징이다. JW중외제약의 기존 제품인 '프렌즈 아이드롭 쿨'과 동일한 수준의 청량감을 갖췄다.

한편, 이번 프렌즈 아이원 쿨은 방부제와 보존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인 염화벤잘코늄 등은 들어있지 않아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이청하 기자

무신사트레이딩, '챔피언' 브랜드 국내 유통

'어센틱 브랜드 그룹'과 파트너십

무신사의 브랜드 비즈니스 전문 자회사 '무신사트레이딩'이 스포츠 브랜드 '챔피언'의 국내 공식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무신사트레이딩에 따르면, 지난 1일 글로벌 브랜드 매니지먼트 기업 '어센틱 브랜드 그룹'과 챔피언의 국내 공식 수입 및 유통에 관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어센틱 브랜드 그룹'은 챔피언의 브랜드 소유주다.

'챔피언'은 지난 1919년부터 100여년간 팀 유니폼, 신발, 액세서리 등 스포츠 캐주얼 의류 및 잡화를 폭넓게 선보이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다. 특히, '챔피언'은 후드 스웨트셔츠를 최초로 선보인 만큼 독보적인 정체성과 상징성을 지닌 브랜드라는 게 무신사 측 설명이다. 이번 파트너십 계약을 통해 무신사트레이딩은 챔피언의 의류와 패션 소품 등 주요 제품을 한국에서 독점적으로 운영할 권한을 확보했다.

/인재선 기자 wotjs4187@

/이청하 기자



70년 전 대한민국 최초로 세계화의 물결을 일으켰던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래의 중심, HUFS가 있다 세계와 우리, HUFS가 있다



신설학부

Language & AI융합학부 / Social Science & AI융합학부

Finance.& AI융합학부 / AI데이터융합학부

디지털콘텐츠학부 / 투어리즘 & 웰니스학부

반도체전자공학부 / 기후변화융합학부

70년을 넘어 100년까지 학생이 성공하는
HUFS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Come to HUFS Meet the World

입학안내

02-2173-2500 / <https://adm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강석진 이사장, 창원산단 방문... “을사년 현장 소통 강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 현장 소통 프로그램 확대
“기업 혁신성장, 지역경제 활성화”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새해 첫 공식 행보로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찾아가는 중진공, 현장 특특소통 프로그램’을 열고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

중진공은 ‘국민과 중소기업 속으로 찾아가는 중진공’으로 거듭나기 위해 현장 소통 프로그램을 올해엔 전국 단위로 확대·추진한다.

중진공은 2일 경남 진주본사에서 을사년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강석진 이사장과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무식에선 2025년 경영방침과 중점 과제를 발표하고,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혁신성장을 위한 전사적 역량을 결집한다는 의지를 다졌다.

시무식 이후 강 이사장이 방문한 창



강석진 이사장(앞줄 왼쪽 4번째)이 2일 창원 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찾아가는 중진공, 현장 특특’ 기업 간담회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원 국가산업단지는 1974년 조성된 이후 지금은 첨단기계 및 융복합 소재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산업단지 중 한 곳이다. 최근에는 중소기업 공동사업 전환 사업과 노후단지 재생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강 이사장은 창원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 협회 회장인 신기수 대건테크 대표를 비롯해 임진영 건영테크 대표 등 창원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 및 관계자 60여명과 함께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지원책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진공은 이날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산업성장프로젝트’, ‘구조혁신사업’, ‘규제자유특구 사업’ 등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신규 사업 발굴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도약(Jump-Up)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해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외국인 유학생 취업매칭(K-WORK) 플랫폼’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강석진 이사장은 “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진공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이번 ‘찾아가는 중진공, 현장 특특소통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기업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BNK금융그룹 “을사년 청렴문화 확산”

BNK금융그룹은 2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푸른 뱀의 해 을사년(乙巳)의 각오를 다짐하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행사는 국가적 큰 사고를 맞아 국가애도기간에 뜻을 함께하고 자 검은 리본을 패용하고,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각 부문별 업무보고와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경영진 윤리경영실천 서약식으로 진행했다. /BNK금융그룹



삼일PwC, 'PwC비즈니스서비스' 출범

삼일PwC는 기업 설명 및 홍보(IR·PR) 자문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자회사 'PwC비즈니스서비스'를 출범했다. (왼쪽부터) 민준선 삼일PwC 팀 부문 대표, 이남구 PwC비즈니스서비스 대표, 정지원 PwC비즈니스서비스 대표가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일PwC

KAJA “이달의 차 ‘더 뉴 아우디 Q7’” 유진그룹, 기부로 새해 시작... 5억 쾌척

〈자동차기자협회〉

32.3점 획득... “높은 실용성 갖춰”

아우디코리아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Q7이 국내서 상품성을 입증했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KAJA)는 2025년 1월의 차에 더 뉴 아우디 Q7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선보인 신차 중에 BMW 뉴M2, 아우디 더 뉴 아우디 Q7, 포르쉐 타이칸 터보 GT(브랜드명 가나다순)가 1월의 차 후보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더 뉴 아우디 Q7이 32.3점(50점 만점)을 얻어 1월의 차에 최종 선정됐다.

정지연 올해의 차 선정위원장은 “더 뉴 아우디 Q7은 4년 만에 선보인 부분



아우디 ‘더 뉴 아우디 Q7’ 주행모습.

변경 모델로 세련되고 날렵한 디자인, 역동적인 퍼포먼스, 높은 실용성을 갖춘 아우디의 대표 프리미엄 SUV”라며 “다양한 아우디의 혁신적인 첨단 안전 및 편의 사양을 탑재해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제공한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ysw@

사회복지모금회 3억, 적십자사 2억

유진그룹(회장 유경선·사진)이 을사년 첫 업무를 기부로 시작했다.

유진그룹은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억원, 대한적십자사에 2억원 등 총 5억원의 성금을 기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유진기업 ▲유진투자증권 ▲동양 ▲유진레저(푸른솔GC 포천) ▲동화기업(푸른솔GC 장성) 등 유진그룹의 주요 계열사가 마련했다.



유진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과 전 임직원의 나눔 실천 의지를 다지는 의미로 2016년부터 매년 새해 첫 업무일에 ‘기부 시무식’을 진행하고, 사회공헌 성금을 기탁했다.

올해는 여객기 참사 국가애도기간에 동참하기 위해 행사를 열지 않고, 모금기관에 성금만 전달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조아제약, 1000만원 상당 건기식 기부

조아제약이 최근 은평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에 ‘잘보통’을 기부했다고 2일 밝혔다. 조아제약이 이번에 전달한 물품 규모는 1000만원 수준으로 독거 노인 및 건강 취약계층에 전달된다. 마정욱 은평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장과 (왼쪽)과 조아제약의 고정관 기획홍보실장(오른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조아제약

금감원,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

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법인의 감사 계약체결 시기를 앞두고 외부감사제도와 관련해 전국 순회설명회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5개 도시에서 2025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설명회는 1월 21~24일 진행되며 ▲광주(21일) ▲대구(22일) ▲울산·부산(23일) ▲서울(24일) 순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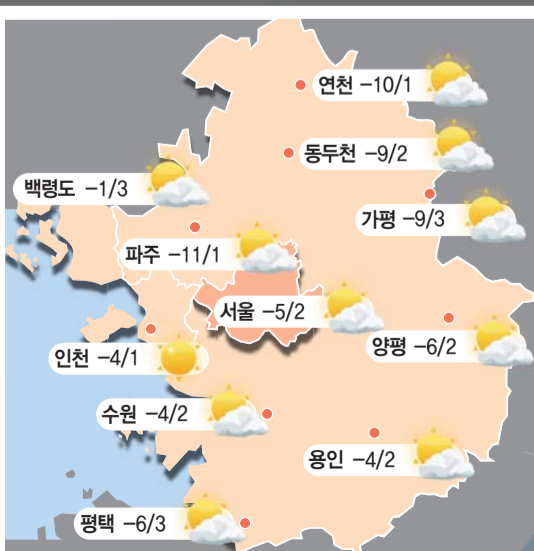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감사인은 설명회 개최지역의 각 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 가능하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오늘의 날씨

1월 3일 (금) 음력: 12월 4일

수도권 날씨 -5 ~ 2°C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인사

◆셀트리온그룹 <승진> 셀트리온<전무>△송수은(임상개발본부장)△장일성(바이오메트릭스본부장)△조종문(생명공학연구본부장)△상무△류성훈(엔지니어링본부장)△강성환(SCM본부장)△박정호(글로벌사업지원본부장)△백경민(의학본부장) 임원, 필리핀법무장(겸)△이우성(DS생산 2본부장)△윤석민(관리운영담당장)△하태훈(유통본부장)△이시라김명진(생산QC담당장)△김지연(메디칼학술담당장)△남상욱(3공장DS담당장)△마민지(임상운영 3담당장)△박상준(경영기획담당장)△석진규(코퍼레이트QA본부장)△윤사용(미국법인 담당 임원)△장소용(신규사업담당장)

◆셀트리온제약<전무>△최덕규(생산본부장)△상무△김주범(품질본부장)△이시라김승환(마케팅담당장)△정혁(4그룹장)△정형준(생산기술담당장)

◆KB라이프파트너스 <대표이사>대표이사 사장 김성수 <상무>승진<경영총괄>김대웅(점적 영업기획부장)△유임△소비자보호총괄 전무 이준호

◆하나증권 <승진>△상무 대우△FICC Sales실 윤석삼

◆DS투자증권 <승진>△이시라△자금팀장 김정훈 △프로젝트금융팀장 정주영 △부장 △결제업무팀장 박수 △차장 △인사팀장 김정우 △인사팀 김나리 △주식운용팀 이창

학 △총무팀 신성만△과장△기업분석팀 조대형 △파생상품운용팀 박강연

◆KR투자증권 <신규 채용>△기업금융본부 정성호 본부장(상무) △개발금융팀 이희성 이사

◆한양증권 <경영임원 선임>△IB총괄 김기형(사장) △FM부부장 정진욱(상무) △부부장 선임△경영기획부부장 나진호(상무)

◆빙그레 <승진>△본부장 △생산담당 박병구 △상무 △BD팀장 한만준

◆보령 <승진>△상무 △노장욱(재무본부장) △배상호(병원본부장) △김관호(안산생산본부장) △유은종(예산생산본부장) △손장완(윤리경영실장)

부음

▲김무오(파브코이앤지 대표)씨 별세 ▲김무오(파브코이앤지 대표)씨 별세, 김샤리씨 형제상, 최동석(도림건설 대표)씨 처남상=지난해 12월29일 오전, 광주 천지장례식장 302호, 발인 4일, 062-527-1000

▲최기주(아주대학교 총장)씨 모친상 ▲김진란씨 별세, 최기주(아주대학교 총장)씨 모친상=1일,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5호실, 발인 4일, 031-219-4591

▲민연태(전 농림축산식품부 대변인)씨 모친상 ▲최수현씨 별세, 민연태(전 농림축산식품부 대변인)씨 모친상=2일,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17호, 발인 4일, 02-3410-3151

삼성액티브자산운용 하지원 신임대표 선임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2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하지원(사진) 전(前) 삼성자산운용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하 지원 대표는 2022년에 삼성자산운용에 합류해 전략투자부부장, 자산운용부부장, ETF사업부부장을 역임했다. /원관희 기자 wkh@

국순당 “차례주 빚어보세요”

국순당은 민족 명절인 설을 앞두고 전통 차례주를 내가 직접 빚어볼 수 있는 ‘설맞이 차례주 빚기 교실’ 행사를 진행한다. /국순당

이번 행사는 11일 10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국순당 ‘우리술 아카데미’에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전통 차례주 이야기와 전통 차례주 빚기 체험 등으로 진행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탄핵국면과 헌정개혁



송지승 교수의
경제 읽기

2024년 12월 3일 수요일 밤에 벌어진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 같았던 비상계엄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이어졌고, 그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대통령이 쏘아 올린 남남갈등은 비상계엄의 불가피성 여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 합의 주장하는 대통령권한대행의 임명거부와 이어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등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듯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탄핵찬성과 반대에서 대규모 시위가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행정과 사법에 대한 야당의 입법독주 등과 이의 타개책으로 선포되었다는 비상계엄은 얼추 우리 속담의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쓴' 격으로 비유될 수 있지 않을까? 비상계엄이 초래한 우리의 정치·사회현실은 어둡고 불행하지만 현시점에서 국민 서로가 숭구쳐 오르는 실망과 분노를 차분히 가라앉히자.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는지 자성하면서 대

한민국이 가야만 할 길을 모색해보자. 필자는 여·야 정치인들에게 묻는다. 당신들은 국민을 위해 대체 무엇을 하였는가? 그동안 특히, 문재인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치사회엔 정치가 보이지 않고 정쟁과 투쟁만 난무한 듯하다. 정치란 내 주장이 아무리 옳더라도 상대방과 소통하고 설득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데 무려 10여 년에 걸쳐 반대세력과 소통하면서 설득했다는 일화는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한다. 왜 우리 정치인들은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려는 소통 노력에 인색한가? 이는 아마도 우리 헌법, 정치, 선거제도가 빚어낸 결과가 아닐까? 우리 헌정 및 선거제도에서는 대선, 지방선거, 총선을 치를 때는 물론이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우리 국민은 양당제도에 이분법적으로 분열되어 서로를 비난한다. 이런 구도에서 정치의 역할은 실종될 수밖에 없게 되고, 정치인들 역시 배타적 진영논리에 빠져 이전투구를 한다.

역지사지(易地思之)로 비상계엄이라는 불행한 돌발사태와 탄핵소추라는 민주적 요구를 승화시킬 솔로몬의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 1987년 전·후 때론 목숨의 위협과

투옥을 마다하지 않았던 민주화 운동에서부터 그런 위험이 사라진 이후 매번의 대선국면마다 우리는 의회, 선거, 정당제도를 바꾸자고 간절하게 외쳐왔다. 그런데, 바로 지금이 이를 바꿀 천재일우의 기회가 아닐까? 헌정 및 선거제도 혁파는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된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을 달성하려는 데에 있다. 국민 의사가 제대로 대표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체도와 헌정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 정부 협조하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회 주도의 헌정 및 선거제도 혁파를 위한 개혁 추진논의를 필자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먼저, 득표율과 의석수를 괴리시키고 양당제를 공고하게 하는 현행 소선거구제 대신에 중선거구제도로 선거법을 바꾸어 국정 수행에 정당 간 자연스러운 협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1표라도 많은 쪽이 전부 아니면 전무인 승자독식의 권력 구조에서 벗어나 프랑식의 결선투표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도 요구된다. 끝으로,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으로 개헌하여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서 책임 및 소신정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때아닌 선거 풍년



김연세
(정책사회부)

우리 국민은 작년 4월 총선을 마쳤다. 그 이후 전국단위 3대 선거가 2년 넘게 휴지에 들어간 상황이었다. 원래 다음 선거는 내년 6월에 예정된 지방선거였다. 대통령은 후년에 뽑는 수순이었다. 상황은 급변했고 대선이 예정보다 2년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현실이 된다고 가정해 본다.

이 경우 1987년 국민투표를 통해 쟁취한 직선제 이래 처음으로 3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 지난 87년 대선부터 8차례 모두 0007년 아니면 0002년에 치러졌다. 올해부터 연도의 끝수는 5 또는 0으로 바뀐다.

이런 가정하에 2030년까지 선거관은 정

신없이 돌아간다. 2025년 대선에 이어 2026년 지선, 2028년 총선이 잡혀 있다. 이어 다음 대선과 지선이 2030년에 함께 실시된다.

각 당 전당대회를 비롯해 경선, 후보 선출, 선거운동 기간 등을 포함하면 향후 5년간 그야말로 '전폭 물갈이'의 시대가 도래한다. 정당과 유권자가 사실상 1년에 한 번 꼴로 전국 투표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는 물론 임기 5년 단임제가 유지될 경우에 해당된다. 4년 중임제 또는 내각책임제론이 대두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개헌이 필요하기에 87년도와 같이 국민투표까지 실시하는 시나리오다.

올해엔 그간 인기 없던 재·보궐선거도 관심을 끌 수 있다. 지난 2022년에 선출된 시·도지사 일부가 올해 대선에 출마하면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한 재보선이 요구된다. 과거 시한에 임박한 지자체장의 사퇴

로 인해 1년 넘게 공석이 된 사례도 있었다. 다만 국회의원은 대권 도전 시에도 사퇴 의무가 없기에 그나마 다행이다.

2025년은 동·하계 올림픽도, FIFA 월드컵도 없는 해다. 구름이 담 넘어가듯 요할 뻔한 뱀띠 해가 역사에 한 획을 그을 해로 변신했다. 행여 대선이 다른 해로 밀리는 일이 생긴다 해도 나라가 조용할 리 만무하다. 아니 예측 불가능한 사태가 다시 또 벌어지지 모른다.

기자는 육군병장 시절 생애 첫 대선 한 표를 행사했다. 내무반 후임병들과 함께 다녀온 부재자투표 전후, 각 지지 후보에 대해 갑론을박을 주고받았다. 당시 계엄령이 내려졌다면 우리 무슨 얘기들을 나눴을까. 지금 군복무 중인 후배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2024년 12월 3일 이후 그때의 기억이 새롭다. /세종= kys@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월 3일 (음 12월 4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자식이 능력을 인정받으니 날아갈 듯하다. **48년생** 변화의 날이니 외모에 신경 쓰자. **60년생** 극심한 경쟁은 패배로 온다. **72년생** 연인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좋으나 지출이 과다하다. **84년생** 지금의 행복이 가장 소중하다.
- 37년생**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니 우선 할 일을 찾아보자. **49년생** 정신적 지주는 공부에서. **61년생** 습관이나 주는 편안함을 이겨야 한다. **73년생** 욕심 많은 돼지 목에 진주를 걸어본들. **85년생** 삶이 몹시 지루하다.
- 38년생**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주관을 갖고 행동. **50년생** 창의력이 번뜩 빛난다. **62년생** 희망은 내가 만들어 가는 것. **74년생** 남의 말을 사들여 가지 않으니 구설에 신경 쓰지 마라. **86년생** 상부상조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을 준다.
- 39년생** 소통과 협력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마음. **51년생** 자신이 가는 길이 최선이라 믿어야 한다. **63년생** 머리는 아프고 몸은 천근만근. **75년생** 내 발등을 찍는 것은 남이 아닌 내 도끼. **87년생** 지나친 관심은 상대를 지치게 한다.
- 40년생** 비단옷을 입고 한방중에 돌아다녀 볼을 누가 보겠는가. **52년생** 허릿간까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64년생** 어린 친구를 만나 지혜를 얻는다. **76년생**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홀히 마라. **88년생** 종로에서 뽕맛고 한강에 가서 눈 흘길 듯.
- 41년생** 조금함이 화를 부르니 느긋하게 행동. **53년생** 후회는 없으나 발전도 없다. **65년생** 선택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라. **77년생** 곧 서리가 내리니 얼음이 얼 것을 준비해야만. **89년생** 손재주가 있으니 좋은 곳에 기부하는 것도 좋다.
- 42년생** 병도 약도 다 내 얘기 나름이니 신중하게 처신. **54년생** 다툼이 생기니 말조심하자. **66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타난다. **78년생** 아랫사람에게 한 칭찬은 큰 성과로 돌아온다. **90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는 가지 않는다 했지만.
- 43년생**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았는데 힘이 든다. **55년생** 지혜는 부족해도 근면성실로 극복. **67년생** 인색하다가 만사지탄(晩時之歎)이 되지 않도록. **79년생** 어깨를 으쓱할 일이 생긴다. **91년생** 슬픔에 가슴이 답답하니 한잔 술로 달래보는데.
- 44년생** 바람이 불어도 다 흔들리지는 않는다. **56년생** 길이 멀어도 시작하자. **68년생** 투자는 시기가 아닌 듯. **80년생** 아첨하며 마음이 혼란하니 독서로 길을 찾아보자. **92년생** 급한 마음에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고 앞뒤를 잘 살펴야 실수가 없다.
- 45년생** 몸도 마음도 피곤한 날이니 충분한 휴식이 필요. **57년생**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하루. **69년생** 참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은 해야 한다. **81년생** 비운 뒤에 땅이 굳으니 신념을 갖고 실천하도록. **93년생** 내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발목을 잡힌다.
- 46년생** 투자하라는 달콤한 속삭임이 있으니 굳은 의지가 필요. **58년생** 가는 사람도 진정 잡아야 할 때가 있다. **70년생** 지나친 절약으로 주변의 원망을 듣는다. **82년생** 좋아도 금방 달려들지 마라. **94년생** 조연도 사람을 봐가며 해야 한다.
- 47년생** 다양한 분야의 일을 하다 보니 도사가 되었다. **59년생** 두드리면 열릴 문이다. **71년생** 늦은 재혼은 백두어신(白頭如新). **83년생** 내 영역을 넓히는 것은 실력이 밑바탕. **95년생** 인생사 그물을 치지 않고 고기가 잡히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김상회의四季

속성기도 ①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우환이나 시급한 일이 생길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몹시 황망하고 당황하여 오히려 잘못된 결정으로 일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한 것은 이런 설상가상의 실수를 막을 수 있음이다. 몸이 아프면 먼저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일상사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안에 따라 해결방도를 찾는 것이 순서다. 그러한 와중에 뭉개 마음에 답답하고 불안한 생각이 든다면 기도만한 방편이 없다. 기도가 만병통치약이냐고 비웃는 사람들도 본다. 기도는 우선 숨을 고르게 한다. 급하게 흘러가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그러한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지혜를 주기도 하고 마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하는 의지를 확립해주시기도 한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속담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뜻하는 바대로 기운을 부르는 힘이 있다.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는 믿음이 화엄경의 종지처럼 염력(念力)을 모으는 것이 기도다. 물론 참된 기도의 기본원칙은 스스로 바라는 바가 청정해야 한다. 여기서 청정이란 기도의 결과가 자신에게도 좋지만 타인에게도 해가 되지 않음을 뜻한다. 그럼 누군가는 묻는다. 시험 발원처럼 내가 합격하기를 바라는 기도는 누군가는 떨어지게 되니 해가 되지 않겠냐고? 이것은 바른 비교가 아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차질없이 나타나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실력이 부족함에도 나보다 좋은 성적을 가진 사람이 떨어지고 대신 내가 되게 해 달라는 염치없는 욕심과는 다른 것이다. 진인사대천명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기도다. 이럴 때 속성기도가 있다. 하심하며 스스로 마음을 정하게 하고 백팔 배, 천 배, 더 나아가 삼천 배를 해보시라. 어찌해야 할지 마음에 답이 온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학습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8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89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을사년을 여는 최고의 한잔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2025년 을사년(乙巳年)을 여는 첫 잔은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백 담백 정상에 선 와인들이다. 최고라고 해서 비싸지 않을까 하는 부담은 접어두자. 쟁여두고 마셔도 될 만한 벨류와인이나 가성비 '갑'인 와인들도 있으니 말이다.

먼저 와인스펙테이터(WS)가 꼽은 세계 톱 10 와인이다.

1위는 칠레 와인이 차지했다. '비나 돈 멜초, 카베르네 소비뇽 2021'이다. 칠레 와인이 1위에 오른 것이 순위를 발표하기 시작한 1988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돈 멜초는 칠레 프리미엄 와인 중에서도 컬트와인의 시초로 불린다. 특히



와인스펙테이터가 꼽은 톱 10 와인.

2021년은 돈 멜초로는 세기의 빈티지라고 불릴 만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과 이탈리아의 2021 빈티지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미국 와인으로는 보리우 빈야드의 '조르주 드 라푸르 프라이빗 리저브 카베르네 소비뇽 2021' (2위)과 '파우스트, 나파밸리 카베르네 소비뇽 2021' (4위), '침니락, 스택스립 카베르네 소비뇽 2021' (5위), '드루앵 오리건, 로즈락 에올라 힐즈 피노누아 2022' (6위),

'윌리엄 셀럼, 러시아 리버벨리 이스트 사이드 로드 네이비스 피노누아 2022' (8위), '라미, 러시아 리버벨리 샤르도네 2022' (10위) 등이 꼽혔다.

이탈리아 와인은 안티노리의 '티나 델로 2021' (3위)과 '지디 바이라, 바롤로 알베 2020' (9위)이 이름을 올렸다.

세계적인 평론가 제임스스클링(JS)이 내놓은 톱 10 와인에서는 '베르타니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 클라시코 2015'가 1위를 차지했다. 100점 만점 기

준에서 100점을 받았다.

JS는 "시간과 장소의 위대함을 구현하는 고전적인 와인"이라며 "로마 제국 당시부터 포도를 재배했던 이탈리아 북동부 발폴리첼라 클라시코 지역에서 생산되지만 와인의 균형과 세련미는 숨막히게 뛰어나 오늘날 신고전주의 와인의 위대함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극찬했다.

JS만의 리슬링 사랑도 여전했다. 리슬링 품종으로 만든 와인으로는 독일의 '쿤슬러 리슬링 라인가우 홀레 GG

2023' (2위)와 '돈호프 리슬링 나헤 헤르만스홀레 GG 2023' (5위), 오스트리아의 'FX 피흘러 리슬링 와차우 리드 켈러버그 2023' (3위)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와인 인투지애스트는 미국 스파클링 와인인 '로코 2013 RMS 브뤼 DD'와 이탈리아 토스카나 와인인 '콜도르치아 포지오 알 벤토 산지오베제 2016'을 각각 1, 2위 와인으로 선정했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인생을 바꾸는 '승리 사이클'

연말 루틴 중 하나인 다이어리 구매를 위해 지난달 31일 광화문 교보문고를 찾았다.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매장 안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여파로 독서 인구가 늘어서 집을 찾는 이들이 많아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며 서가를 지나쳐 문구류 판매 코너인 핫트랙스로 향했다.

놀랍게도 이날 교보문고에는 필자처럼 책이 아닌 다이어리를 사러 온 방문객들이 많았다. 책 구경은 여유로운 반면, 플래너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겨우 펼쳐볼 수 있었다. 사람들은 왜 매년 새해가 되면 새로 구매하는 다이어리에 반듯한 글씨로 신년 계획을 적어 넣는 걸까.

회사 업무나 학습, 취미 등 개인 프로젝트의 성과를 3개월 내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을 다룬 책 '100일을 디자인하라'에서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얻었다.

저자는 "우리는 목표를 세울 때 크든 작든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자신이 되겠다고 생각한다"며 "목표를 세우고자 할 때 우리는 새롭게 다시 태어나기 위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한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는 상황을 인식하고 목표를 이루는 사람은 삶의 새로운 무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책은 강조한다.

저자에 따르면, 목표 달성 의식이 큰 사람일수록 연 수입이 많았다. 또 목표를 세우고 80% 이상 성취한 그룹은 자기 만족도와 생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를 이뤄낸 이들 중 인생에 대한 만족도가 '상'이거나 연 수입,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많은



100일을 디자인 하라
나카타 히데토모 지음/이지현 옮김/유엑스리뷰

이유는 뭘까.

저자는 "목표를 하나씩 성취해 나가는 것은 자기 긍정감과 자기 효능감을 상승시키고, 이는 더 높은 목표를 이뤄내는 원동력이 되는 선순환을 만든다"며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건 단순히 눈앞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훗날 당신의 미래에 행복을 선사해 줄 것이다"고 이야기한다.

책에는 독자들이 석 달 만에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가지 꿀팁들이 담겼다. 저자는 시간을 역산해 계획을 세우고, 도움닫기 기간에 기본기를 다지는 수행을 거쳐 골든타임 때 최대 효율을 유지하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100일마다 목표 달성을 꾸준히 이루는 '승리 사이클'을 구축하면 시대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항상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다고 저자는 조언한다.

180쪽, 1만8000원 / 김현정 기자 hjk1@

슈퍼 강소기업

우리나라의 기업 현실은 혹독하다. 한국엔 772만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존재하며, 매일 3개의 회사가 폐업한다.

암담한 경제 상황 속에서 잡초처럼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하며, 20년 넘게 성장을 유지해온 기업들이 있다. 평균 매출 651억원, 평균 업력 22년이라는 기록을 가진 20개 '슈퍼 강소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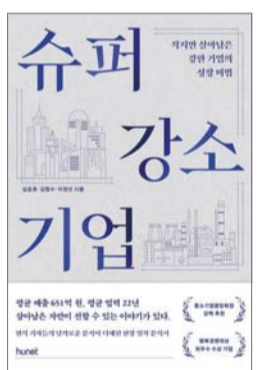
책은 3명의 베테랑 경제 기사가 전국을

누비며 발굴한 글로벌 강소기업의 성공 사례를 다룬다.

"몸집보다 수익, 외형보다 내실이 중요하다", "스스로 혁신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 전략" 등 이론이 아닌 실전에서 검증된 CEO들의 생존 비기를 소개하고 기업들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340쪽, 2만2000원

김승호, 김형수, 이정선 지음/휴넷



대한민국 보수는 왜 매국 우파가 되었나?

'이승만 광명, 박정희 피살, 전두환 무기징역, 노태우 징역 17년, 이명박 징역 17년, 박근혜 탄핵과 징역 20년,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 책은 대한민국 우파 세력이 왜 성공한 대통령을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는지를 파헤친다.

저자는 해방 이후 우익의 계보를 씨줄로, 역사와 시대에 대한 통찰을 날줄로 현 대사를 재구성해 대한민국 보수를 참칭하

는 우익이 최종적으로 뉴라이트에 다다른 모습과 실체를 까발려 그들이 왜 매국 우파인지 밝힌다.

우리나라에서 우파의 가면을 쓴 집단은 보수가 최우선으로 꼽는 전통적 가치, 즉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이익을 쫓는 대신 사대주의에 기대 기득권 유지와 사익 추구에 혈안이 됐다고 책은 지적한다.

160쪽, 1만6800원

이병권 지음/황소검음



알고리즘, 패러다임, 법

인류는 규칙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인간은 규칙을 만들고 규칙은 세계를 만든다. 교통 표지판부터 스포츠 규정, 요리 레시피, 사용 설명서, 맞춤법, 헌법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365일, 24시간 규칙의 그물망에 얽혀 있다. 재난, 전쟁, 테러가 일어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원칙을 찾으며 질서를 바로잡으려 애쓴다.

저자는 인간이 어찌서 규칙을 만들고 바꾸고 없애는 것인지, 규칙이 현실을 어떻게 정의하고 재단하고 통제하는지, 규칙이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측정 및 계산의 도구 '알고리즘', 따라야 할 모델 '패러다임', 사회를 통제하는 '법' 총 세 가지로 나눠 규칙을 분석하며 그 본질을 밝히는 책.

464쪽, 2만3000원

로레인 대스턴 지음/황정하, 홍성욱 옮김/까치(까치글방)



메트로 한줄뉴스

- ▲ 현재 "재판관 임명 보류 헌법소원, 신속 심리 착수"...신임 재판관 바로 투입
- ▲ "빨간불" 횡단보도 건너던 80대, 승용차 2대에 치여 사망

- ▲ '살인사건, 단순 변사?'...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경찰관 송치
- ▲ 새해 첫날 온누리상품권 등 민생사업 3306억 집행...역대 최대 규모



- ▲ 전기차 보조금 최대 580만원+α ...다자녀가구, 최대 300만원 추가
- ▲ 경찰, 대통령 관저 앞 드러누운 지지자들 강제 해산

/사진 뉴스스



명품 브랜드
새해 가격인상
백화점 '한숨'
니



Life

K-제약바이오
임상·기술수출로
글로벌서 우뚝
L2



주머니 '쪽' 들어가는 홍삼템 현대인 일상에 '쪽' 들어오다

정관장이 2012년 최초의 스틱형 홍삼으로 선보인 '에브리타임'은 간편건강의 시대를 열어, 바쁜 현대인들의 일상 속 건강 필수템으로 사랑받았다. 간편하게 건강을 케어할 수 있도록 스틱·필름·앰플 등 다양한 제형을 선보이고, 맛과 소재, 기능성을 다변화한 제품 라인업을 확장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자리매김했다.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KGC인삼공사 '정관장 에브리타임'

쉽고 간편한 홍삼 섭취 위해 '스틱형' 개발
12년간 누적 매출액 1조5598억 기록 '히트'

홍삼농축액 압축시킨 '필름형' 제품 출시
애플민트·한라봉 맛 등 외국인 입맛 저격

미국서 혈행개선, 피로회복 특화 제품 선배
중화권서 먹기 편한 홍삼으로 젊은층 인기

◆간편한 섭취 2030 고객 유입에 큰 역할

'에브리타임'은 2012년 홍삼을 간편하게 섭취하려는 소비자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결과 탄생했다.

'에브리타임'이 출시되기 이전 정관장 매출을 견인한 제형은 농축액 타입이었다. 정관장이 다년간의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젊은 소비층 사이에서 휴대와 섭취가 편리한 홍삼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파악했고, 이에 회사는 스틱형 홍삼 개발에 착수, 제품명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섭취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아 '에브리타임(EVERYTIME)'으로 지었다. 홍삼을 스틱형으로 선보인 건 '에브리타임'이 최초다.

'에브리타임'은 출시 초기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2013년 90억원에 불과하던 '에브리타임'의 연매출은 2015년 480억원, 2016년 1000억원을 돌파했고, 2019년에는 19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출시 후 12년간 누적매출액 1조5598억원을 기록하며 메가 브랜드로 성장했다.

특히 '미생', '태양의 후예' 등 인기드라마에 등장한 '에브리타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에브리타임'은 한때 '미생홍삼'으로 불리며, 2030세대는 물론 40대 직장인들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T(시간)P(장소)O(상황) 맞춤 라인업 확장

정관장은 '에브리타임'의 성공에 힘입어 제품 라인업을 꾸준히 확장했다.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스틱뿐 아니라 필름, 앰플 등 새로운 제형의 제품을 선보이고, TPO(시간·장소·상황)에 맞춘 홍삼 외 다양한 소재와 맛을 더한 제품으로 '간편홍삼'을 넘어 '간편건강' 브랜드의 대명사로 불리게 됐다.

그중 구강용해필름(ODF)에 홍삼농축액을 압축시킨 '에브리타임 필름'은 출시 1년 4개월만에 누적판매량 480만장을 돌파하며, 2세대 에브리타임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초경량 개별 포장으로 지갑 및 주머니에 챙겨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고, 물 없이도 섭취할 수 있어 바쁜 업무나 운동 중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이 성공요인으로 꼽힌다.

'에브리타임'은 편의점, 면세점 등에 입점하며 구매 접근성도 높였다. 접근성이 우수한 편의점에서 건강식품을 찾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관장은 '에브리타임 리프레시·맥스' 2종을 편의점에 입점시켰다. 매일의 컨디션에 따라 한 포씩 에너지 충전과 기분전환을 도울 수 있어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다.

면세점에서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취향까지 고려해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에브리타임'을 선보였다. 홍삼을 애플민트 맛으로 구현한 '에브리타임 필름 프레쉬'를 비롯해, 우리나라 대표 과일 맛으로 즐길 수 있는 '에브리타임 배·한라봉 맛(Flavor)'를 최근 출시했다. 한편, '에브리타임

소프트'는 감초추출물, 프로폴리스 등을 첨가해 부드럽게 홍삼을 즐길 수 있어, 카카오톡 선물하기 건강부문에 상위권에 랭크되는 등 온라인 상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K-건기식으로 도약...글로벌 매출 연간 600억원

'에브리타임'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을 두드리고 있다. 2023년 한해 '에브리타임'으로만 해외에서 약 6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현지인들의 건강 이슈를 분석하여 소비자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고 주요 글로벌 유통망을 다변화한 결과다.

실제로 '에브리타임'은 국내 건강기능식품 최초로 미국의 프리미엄 마켓체인기업인 스프라우츠에 입점하여 소비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미국 스프라우츠 전점에 입점하는 '에브리타임 2000mg' '에브리타임 파워풀 녹용' '에브리타임 에너지부스트'는 미국 현지인 맞춤형으로 설계한 제품이다. 미국 소비자들이 혈액순환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부스팅과 신진대사에 관심이 많은 점을 고려해,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홍삼의 혈행개선과 피로회복 기능성을 각각 특화해 제품화했으며, 쓴 맛에 익숙하지 않은 미국인의 입맛을 고려해 홍삼의 쓴 맛을 부드럽게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중화권에서는 '에브리타임'이 기존 뿌리삼 위주의 시장을 제품 위주로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고려삼(홍삼)은 '고령층이 찾는 중약(중국 한약재)'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으나 '에브리타임'이 출시된 이후 30대 직장인을 중심으로 먹기 편하다는 점이 부각돼 인기를 끌고 있다. 대만에서는 자몽맛으로 즐길 수 있는 '고려삼정에브리타임 요(柚)'가 2030 여성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에브리타임은 끊임없이 진화하며 현대인들의 일상 속 건강 필수템으로 사랑받았다"라며 "향후에도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이해하고 그에 걸맞는 건강 솔루션을 제공하며 K-건기식의 위상을 높여겠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정관장 에브리타임 필름.



정관장 광고모델 천우희가 에브리타임 필름 맥스&컴피를 들고 있다. /KGC인삼공사



▲한국시리즈 등판 상상...루키 정우주 "한화의 제2막 열겠다"
/사진 뉴시스
▲김하성·김혜성, 수비 전문 선수로 주목...MLB 닷컴 "수비력이 가치 높여"

▲문체부, 축구협회 감독 선임 절차 등 특정감사 재심의 신청 기각
▲K리그 울산, 국가대표 출신 윤종규 영입...“구단 기대에 부응하겠다”

▲前 토트넘 스카우트 일침 “손흥민, 현재 행복한지 모르겠다”
▲김지수, EPL 2경기 연속 교체 출전...브렌트포드, 아스널에 패배



**2025년에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기원합니다**



여객기 사고 관련 희생자 및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